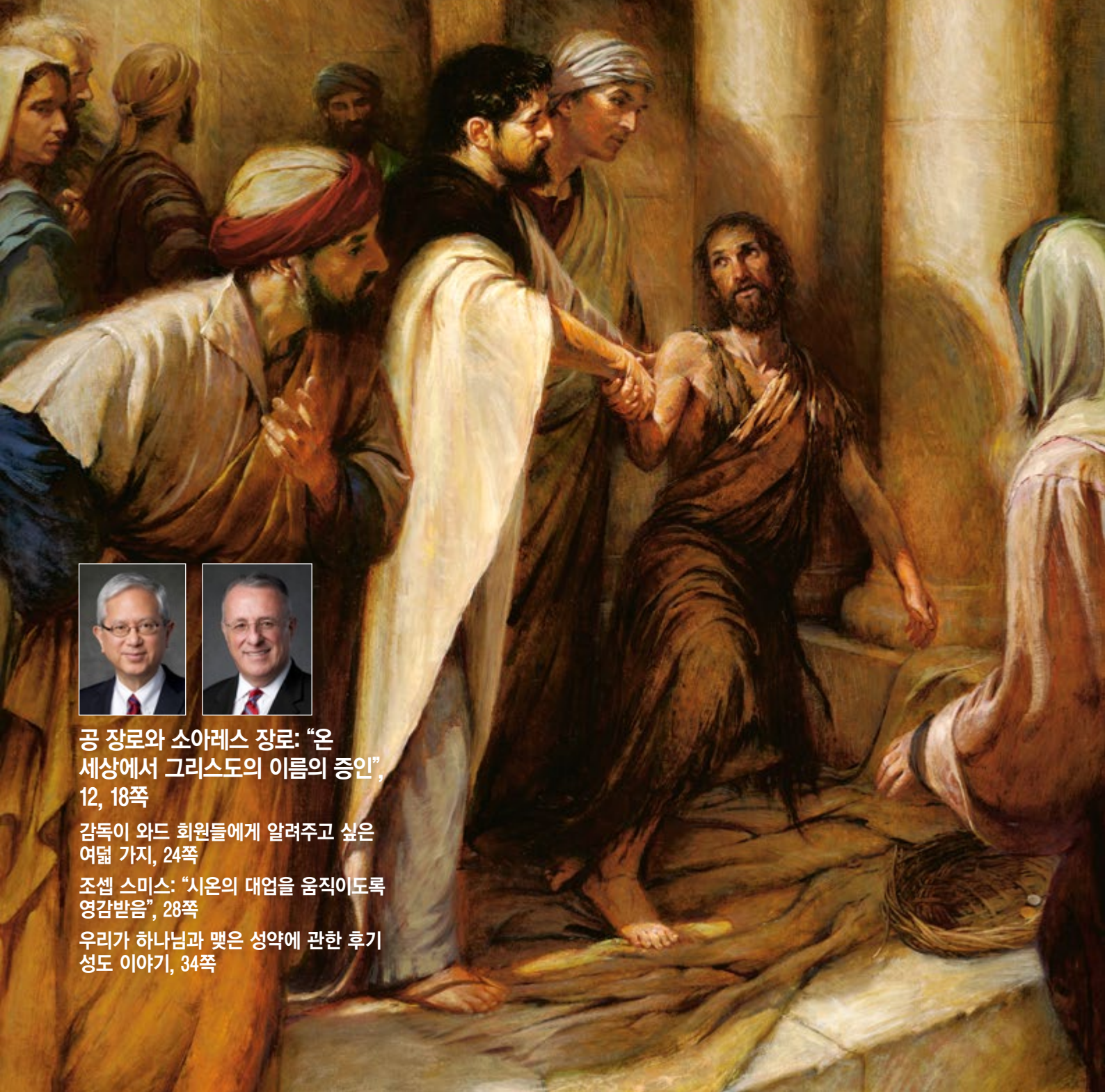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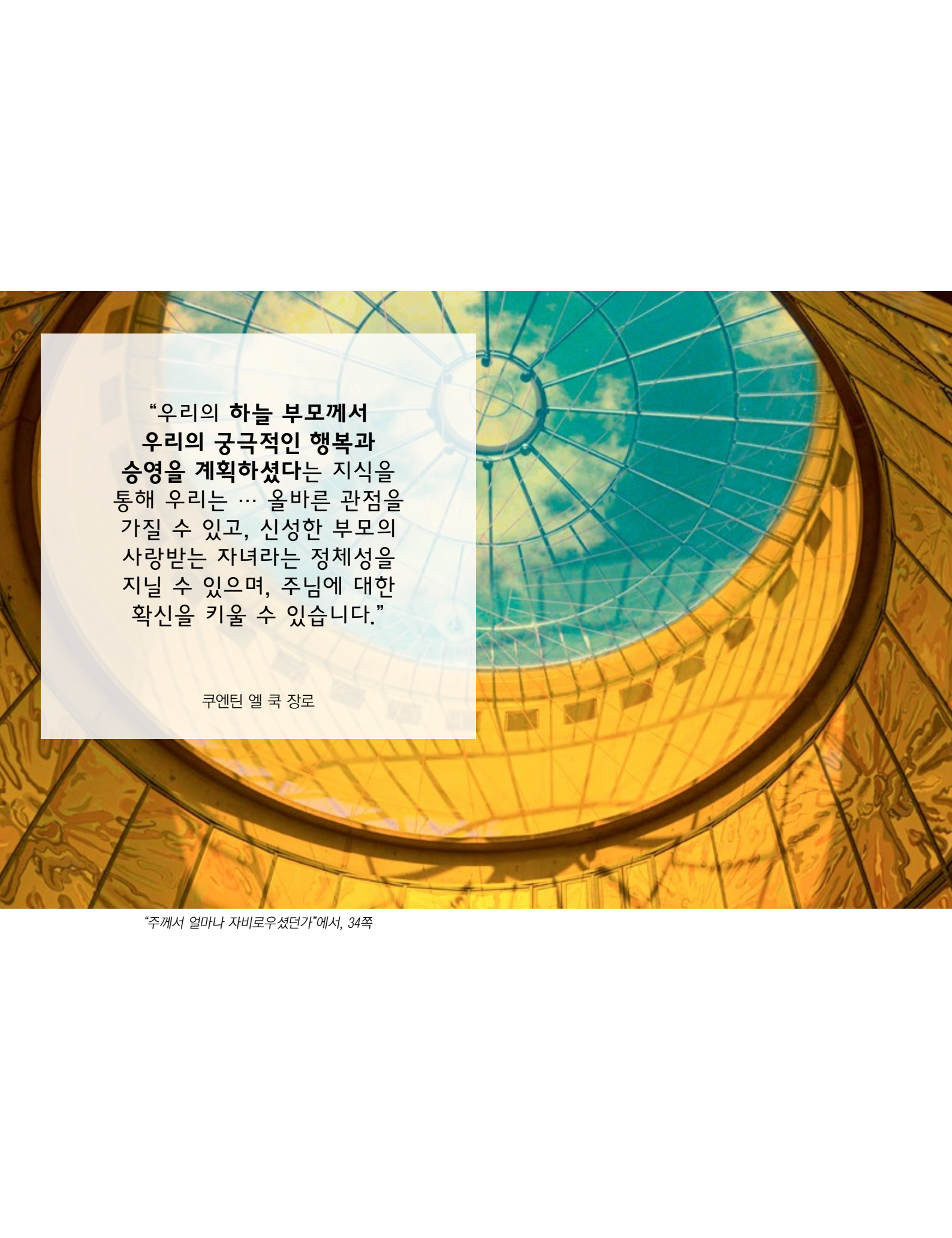


공 장로와 소아레스 장로: “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
12, 18쪽

감독이 와드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덟 가지, 24쪽

조셉 스미스: “시온의 대업을 움직이도록
영감받음”, 28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관한 후기
성도 이야기, 34쪽



**“우리의 하늘 부모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승영을 계획하셨다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신성한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닐 수 있으며, 주님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에서, 34쪽



에드먼드 블레이어 레이튼(1852~1922), *실로암 못의 맹인*, 1879년작, 캔버스에 유화, 40 X 50 1/4인치, 브라운 영 대학 미술관, 2014년에 제 1차 세계 대전 기념으로 구입됨.

**실로암 못의 맹인,
에드먼드 블레이어 레이튼**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한복음 9:11, 33)



특집 기사

6 성역의 원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움을 얻음
사람들을 성역에 참여시킬 때와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8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간교함이 없는 사람
닐 엘 앤더슨 장로

24 감독이 워드 회원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여덟 가지
마이클 마이어
때로 우리는 감독이 자신의 부름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잊어버린다.

28 성도들: 교회 이야기—제8장: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나다
몰몬경이 인쇄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참된 교회로 인도된다. 몰몬경 출판 이후, 조셉은 교회를 조직한다.

34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
쿠엔틴 엘 쿡 장로
회원들은 여러 권으로 된 새로운 교회 역사서에서 충실한 후기 성도들에 관해 읽으면서 영감을 얻을 것이다.

교회 본부 기사

4 신앙의 초상:
마이클 아이작—폴란드 비드고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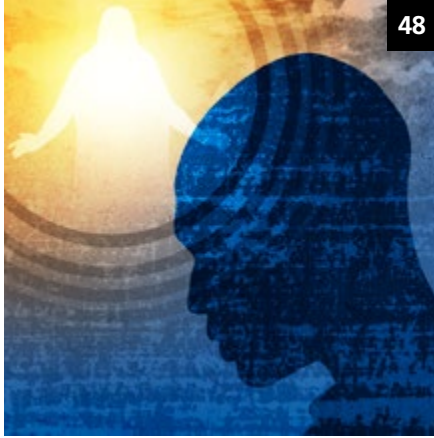
10 우리는 믿는다: 십일조는 어떻게 쓰이는가

40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지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표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윌터 레인.



48


- 44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우리의 동기
민디 셸루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생활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 48 회개로 향하는 첫걸음
아우렐라스 피터슨
감독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났다.

- 50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영이 교사가 될 때, 우리의 학습
능력이 신장할 것이다.
- 54 연차 대회에서 배움을 얻는 5가지
방법
연차 대회 말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 방법들을 알아본다.
- 56 성신에게서 가르침을 받음
십 대들이 연차 대회에서 배운 것을
나눈다.
- 58 포스터: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 59 연차 대회에 관한 사실들
- 60 질의응답
가정에서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영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 62 미래를 준비하는 길
네 명의 청년 성인들이 들려주는
경험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준다.



72

- 66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앨리 비
우리 가족이 이사한 지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 67 협곡에서 드린 기도
칼슨 케이
차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 68 빛을 비추라: 체코 공화국에서 빛을
비추다
- 70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71 우리들 이야기
- 72 신앙, 소망, 그리고 은혜—3부:
네덜란드의 희망
메건 암네히트
- 74 물론경 독서 모임
- 75 구약전서의 영웅들: 에스더는
용감했어요
- 76 경전 이야기: 에스더 왕비
킴 웹 리드
- 79 색칠하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발하나요?



5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헬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버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게리 더블유 콩, 율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에드워드 듀브, 쉘런 윌슨,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더글러스 디 홀츠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프란시스코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샬럿 라키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나, 민디 셸루, 차를 웨일레이, 머리사 컷슨

편집 인턴: 리아 바턴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뱅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위글호스트

디자인 인턴: 머리사 엠 스미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데렉 리차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1호, 제55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10월 1일(일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나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ober 2018 Vol. 42 No. 10.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터넷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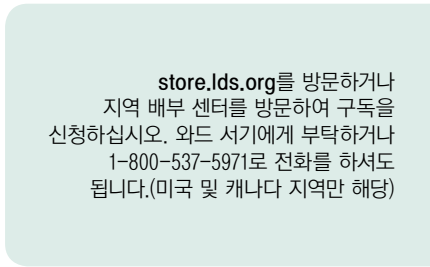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
liahona.magazine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이러한: GETTY IMAGES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간증 56, 68, 71

감동 24, 48

계시 41, 50

교회 역사 28, 34

교회 지도자 12, 18

계약전서 75, 76

기도 4, 40, 41, 67, 68

단합 24, 43, 60

모범 68

물문경 28, 74

배움 50

사랑 66, 79

선교 사업 43, 66

선지자 42, 71, 80

성신 50, 56, 60

성역 6, 24

성전 42, 71

신앙 4, 40, 42, 44

십일조 10

역경 4

연차 대회 54, 56, 58, 59

예수 그리스도 44, 70

용기 75, 76

용서 48, 72

자립 40, 62

조셉 스미스 28, 34

취업 62

하나님 아버지 34, 43

회개 48





신앙의 초상

“질병은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마이클은 말한다. 병을 앓으면서 복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 그는 “이것은 좋은 시련”이라고 말한다.

레슬리 넬슨, 사진작가

마이클 아이작

폴란드 비드고슈치

처음에는 화가 났다.

“왜 접니까?” 하고 기도했다. “주님, 당신을 섬겨 왔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고 죽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48)

교회 회원들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도, 나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나 또한 그들이 내게 보여 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나이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여전히 많이 있다.

나에게는 교회가 있다. 기도를 통해, 음식을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하겠는가?

나는 가끔 혼잣말을 한다. “아마 그래서 아픈 것일 테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곳에 속해 있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해하려고 말이야.”

추가 정보

희망이라는 힘에 의지하며 삶의 도전에 맞서는 것에 관해 러셀 엠 넬슨 회장에게서 더 배우고 싶다면 [lds.org/go/10185](https://www.lds.org/go/10185)를 참조한다.

[lds.org/go/18](https://www.lds.org/go/18)에서 신앙의 초상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성역의 원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움을 얻음

성역을 베푸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역에 참여시키는가? 성역 접견과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 참여한다.

캐시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처지가 되자, 매일 밤 휠체어에서 내려 침대로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도움은 회원 한 사람이 주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다. 그래서 장로 정원회에서 캐시의 상황에 대해 상의하고 매일 저녁 그녀를 도울 일정표를 짜기로 했다.¹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과 강점을 알게 되면,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성역 접견과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은 다른 사람들을 적절히 성역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토론할 기회가 된다.

성역 접견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성역을 베푸는 자매들과, 혹은 장로 정원회 회장단이 성역을 베푸는 형제들과 분기별로 갖는 접견은 우리가 성역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유일한

공식 보고이다. 적어도 분기별로 갖는 성역 접견은 (1) 지명받은 가족과 개인의 강점, 필요 사항, 겪고 있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2) 장로 정원회, 상호부조회, 또는 와드 평의회가 어떤 필요 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3) 지도자들에게서 배우고 성역을 베풀도록 고취될 수 있는 기회이다.

장로 정원회 회장과 상호부조회 회장은 중요한 필요 사항을 감독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에게서 조언과 지시를 받게 된다.

성역 접견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ministering.lds.org를 참조한다.

의미 있는 성역 접견을 함

성역 프로그램이 교회의 진로를 좌우할 핵심이 될 것이라는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말씀에 더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스티븐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분의] 비전을 실현하는 문제는 ... 형제와 자매 성역자들이 성역 접견에서 얼마나 잘 배우고

“성역의 원리” 기사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성역 방문 때 메시지로 나누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면, 그들을 보살피게 되고 그들에 대해 측은한 감정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성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셨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요한복음 6장 5~1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성역을 베푸실 때 몇 번이나 사람들을 참여시키셨는지 알아본다.



성역 접견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²

성역을 베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4가지 조언:

- 조언을 구하는 마음으로 접견에 임한다. 배울 준비를 한다.
-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필요 사항에 관해 논의할 준비를 한다.
- 성역 대상자의 필요 사항뿐만 아니라 강점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 필요하다면 분기별 접견을 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회장단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한다.

지도자를 위한 5가지 조언:

- 접견을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접견 장소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계획한다.
- 성역을 베푸는 형제 자매에게도 성역을 베풀 기회를 찾는다.
- 단순히 방문 횟수를 세거나 연락 여부(“성역을 베풀셨습니까?”)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질문을 한다.(“그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느낌에 따라 행동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 진지하게 경청하고 메모한다.
- 함께 논의한다. 성역 동반자는 성역을 베풀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을 위해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성역 접견에 관한 질의응답

성역 접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역을 베푸는 형제들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 혹은 성역을 베푸는 자매들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성역을 베푸는 형제 자매들은 구주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도록 영감받을 수 있다.

분기별 접견은 직접 대면해서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직접 대면해서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한 동반자와 함께 접견에 참여한다.

성역 접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역 접견은 성역을 베푸는 형제 자매들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성역 대상인 개인이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또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이다.

기밀 사항이나 민감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정보인 경우, 성역을 베푸는 형제 자매들은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장에게만, 또는 감독에게 직접 알린다. 기밀 사항이나 민감한 정보는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성역 접견에 관한 훈련 동영상은 ministering.lds.org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관해 상의하는 것이 성역 접견의 핵심이다. 또한 2018년 9월호 성역의 원리 기사, “그들의 필요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참조.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

성역 접견에 더하여,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은 다른 사람들을 성역에 참여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다. 상호부조회 및 장로 정원회 모임에서 영감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영을 통해 올 수도 있고 그룹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올 수도 있다.

평의회 모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각 와드/지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기회 및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각자의 통찰과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배운다.
- 영을 통해 받은 느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³

평의회 모임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그룹으로서 영의 인도에 따라 행하게 된다. 이러한 모임을 하면 결과적으로 회원들은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다.

행하도록 권유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희는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역을 베푸는 우리 청남 청년이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진심으로 보살필 것을 더 깊이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⁴ ■

주

1. 물론 메시지 동영상 “들어 올라다”, lds.org/media-library 참조.
2. 게리 이 스티븐슨, “성역 접견”(동영상)에서, ministering.lds.org.
3. 러셀 엠 넬슨, “성역”,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참조.
4. 와서 나를 따르라—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용, 리야호나, 2017년 11월호, 140쪽, 또한 comefollowme.lds.org에서도 찾을 수 있음.
5. 제프리 알 홀런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부돋아 주며”,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103쪽.

십일조는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내는 십일조는 어떻게 쓰이는가?



돈을 번다.



수입의 10%를 십일조로 기부한다.(교리와 성약 119편 참조)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의 일원에게 십일조를 내거나 donations.lds.org에서 온라인으로 보낸다.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이 교회 본부의 십일조 지출 평의회를 구성한다.(교리와 성약 120편 참조)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이 거룩한 십일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영감을 받아 결정한다.

십일조는 다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성전, 교회 및 기타 교회 소유
건물의 건축 및 관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전 및 기타 자료 인쇄



가족 역사 사업



복지 및 인도주의적 활동



선교 사업



와드/지부 회원 간의 우정
증진을 위한 교회 활동

더 알아보기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하늘 문", 2013년 10월 연차 대회
- 말라기 3:7~18
- "십일조", 신앙에 충실함(2004), 112~113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결 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생 게릿 더블유 공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게릿은 로즈 장학생으로서 두 개의 대학원 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박사과정이었다. 동시에 그는 옥스퍼드 와드의 감독단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와 아내 수잔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1906~2004) 장로님이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자신들의 결혼식을 집행하시면서 주신 권고를 기억했다. 공 장로는 말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부름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릿은 자신과 수잔이 “신성한 도움과 친절한 자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감독단으로 계속 봉사하면서 게릿은 논문만 제외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학업 요건을 모두 마쳤다. 그는 옥스퍼드 와드의 감독이던 앨런 웹스터 형제님에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축복을 받던 중 게릿은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리라.”

숙련된 법률 비서였던 와드 회원 두 명이 게릿의 원고를 타자로 쳐서 옮기기로 자원하면서, 그는 몇 달 만에 논문을 마칠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3년여 만에 모두 마친 것이었다. 게릿은 졸업 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교수직 제안을 수락했다. 옥스퍼드에서의 경험으로 그는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계속해서 게릿 더블유 공 장로를 축복할 것이다.

떡과 물고기

“주님께서는 친절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십니다.”라고 공 장로는 말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떡과 물고기의 수가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활용 가능한 것을 취하셔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는 떡과 물고기의 원리가 배움에도 적용된다고 말한다. “설령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배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배움의 영을 지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아끼는 친구 중 대부분이 옥스퍼드 와드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공 장로 부부와 함께 성전에 갔던 일을 기억하는 팀과 캐서린 위트 부부도 있다. “저는 공 형제님이 영원에 관한 일들을 깊이 생각할 때면 방해를 받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시계를 풀어놓던 것을 뚜렷이 기억합니다.”라고 위트 자매는 말한다. “그 작은 행동을 보고 나서 저는 더 부지런히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 장로 부부는 복음 안에서 알게 된 친구들을 자주 마주친다. 공 장로는 말한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형제님이 고등평의원이셨을

우리는 모두 자기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빛과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진리를 찾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약에서 오는 소속감

옥스퍼드에 있는 동안 공 장로는 그가 “성약에서 오는 소속감”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복음 원리를 배웠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옥스퍼드에서 수잔과 저는 와드에서의 경험을 우리의 학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공 장로는 행복의 대부분이 부모님인 진과 월터, 그리고 아내인 수잔에게서 비롯된다고 여긴다. 그는 부모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한다. 공 장로가 아내인 수잔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가 늘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때 우리는 형제님과 함께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들에게 비슷한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제가 젊은 감독이던 시절, 저를 도와주신 스테이크 회장님과 와드 평의회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 장인 장모님, 이웃들, 선교부 회장님, 자매들, 그리고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시고, 이끄시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권하시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가족 유산

공 장로의 가족 계보는 34대를 거쳐 서기 837년에 태어난 공씨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 장로의 조부모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했다.

그의 어머니인 진은 십 대 시절 미국 하와이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초대 미술대학 학장이던 게릿 데용의 가족과 함께 지냈다. “데용 부부는 복음 안의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진은 BYU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월터 에이 공을 만났다. “그는 이미 기독교인이었으므로 회복된 복음이 가져다주는 것들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라고 진은 말한다. 그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1년 후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 둘은 전문 교육자가 되었으며, 두 사람이 합쳐서 70년 이상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다.

“아버지는 또한 축복사가 되셨습니다.”라고 공 장로는 말한다. “축복사의 축복을 저희 집에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53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에서 진과 월터의 세 자녀 중 첫째가 태어났다. “그에게 게릿이란 네덜란드어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게릿 데용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은 설명한다. “그의 가운데 이름인 월터는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중국 이름인 성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나타냅니다.”

진은 게릿이 동생 브라이언과 마거릿을 늘 배려했다고 말한다. “게릿은 동생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신발 끈 묶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작은 일까지도 말이죠.” 그녀는 어느 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게릿과 브라이언이 성찬식 말씀이 지루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도전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렴.’

왼쪽부터: 공 장로 부부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게릿과 수잔에게 인사하는 마조리 힝클리리와 고든 비 힝클리. 선교사 시절 공 장로는 대만에서 한 가족을 가르쳤는데, 여러 해가 지나 공 장로가 총관리 역원이 되었을 때 그 집 딸의 손자를 만났다. 베트남에 있을 때, 공 장로 부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벽화를 그렸다. 공 장로의 가족들은 베트남에서 벽화를 그리는 일을 도와준 이들과 함께 만났다.

아들들은 그 도전 과제 때문에 모든 말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은 말한다.

십 대 시절에 게릿은 와드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배낭여행이나 하이킹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게릿의 평생 친구인 윌리 살바카는 그와 함께한 캠핑 여행을 기억한다. “저는 게릿과 그의 동생 브라이언, 그리고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릿은



멜로디를, 브라이언은 테너를, 저는 베이스를 불렀습니다. 단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찬송가를 열 곡 내지는 스무 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비회원이던 친구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살바카 형제는 고등학교 때 게릿이 치어리더들에게 체스 팀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일도 기억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게릿은 정신적인 지지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치어리더들은 실제로 체스 경기장에 응원하러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공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대만 타이베이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그 후 BYU로

돌아와 1977년에 아시아학 및 대학교 연구 학사 학위를 받았다.

교제와 결혼

선교 사업 후에 공 장로는 자원봉사로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요일 저녁 노년의 모임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노년의 모임은 대만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그곳의 사람들, 풍습 및 문화를 익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유타주 테일러스빌 출신의 리처드 피 린지와 메리언 비 린지의 딸 수잔 린지 자매가 있었다. 린지 형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이었다. 공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수잔은 제가 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나 수잔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BYU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게릿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프로보에 머물고 있었다. 아버지가 BYU의 교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프로보 방문 계획을 2주로 잡았다. 그러나 수잔과 매일 데이트하게



되면서 방문 기간은 4주로 늘어났다. 그 후 게릿은 하와이에서 인턴십을 한 뒤에 옥스포드로 돌아갔다.

공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시에 대서양 너머에 있는 그녀에 관해 최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공 자매는 말한다. “우리는 전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추수감사절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새해 처음으로 성전이 열리던 날에 결혼했습니다.” 2주 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으로 왔다.

공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제게도 정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공 가족의 일부이듯이 린지 가족의 일부임을 느꼈습니다.”

눈부신 경력

옥스포드 대학에서 잠시 교직을 맡은 뒤 게릿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84년에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의 재선 캠프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후에 유타 주지사가 된 마이크 레빗과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었다. 레빗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게릿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특징은 변함없는 친절함입니다.”

1985년에 게릿은 국무부 특별 차관보로 일했다. 1987년에는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다. 또한 그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그 뒤 그는 학계로 돌아왔고, 브리검 영 대학교 전략 기획 담당 총장 보좌직을 수락했다. 그는 9년간 그 역할을 수행했다.

BYU 대학 커뮤니케이션 총장 보좌인 캐리 켄킨슨은 당시 바로 옆 사무실을 사용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북돋우는





게릿 공의 능력을 기억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어려운 임무를 맡을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조언하고,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워싱턴과 BYU에서 공 장로를 알았던 연방 판사 토머스 비 그리피스스는 그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다. “대화가 끝날 때면, 그의 대화의 초점이 늘 대화 상대방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정치자입니다. 또한 그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명예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자 BYU 전 총장인 세실 오 사무엘슨은 공 장로가 “보통은 조용하지만 언제나 골똥히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가정생활

게릿 공과 수잔 공은 네 아들을 두었으며, 그들은 에이브러햄, 새뮤얼(샘), 크리스토퍼, 매튜이다. 아들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공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베이징에 있었을 때에 자녀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공 자매는 이렇게 덧붙인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으로서의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저희가 부모로서 가장 잘한 일이 그들에게 서로를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행선지를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워싱턴 D.C.에서 시작해 영국과 체코 공화국, 그리스, 터키, 인도, 중국 및 일본까지 갔습니다.

수잔은 말한다. “그 여행 동안 우리는 한 가지 확고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였던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공 장로는 아들들에게 세계적으로 소고기 요리가 맛있기로 유명한 음식점에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날 네 명의 굶주린 아들과 부모는 맥도날드에서 17개의 햄버거를 먹어 치웠다!

에이브러햄은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께서서는 모두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 큰 가치를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경험이 어떻게 사람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니다.” 에이브러햄은 또한 아버지가 “말은 진심이어야 하고, 뻔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므로 아버지는 늘 신중하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샘은 이렇게 회상한다. “아버지는 국무부에 계셔서 한창 바빠실 때도 매일 밤 시간을 내셔서 제가 참가하고 싶었던 ‘도전 24’라는 3학년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 조언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우승을 한다면 24개의 토핑을 올린 아이스크림선디로 파티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샘은 전국 본선에 올라갔지만 우승하지는 못했다. 어찌 되었든 공 가족은 아이스크림선디를 먹었다. 하지만 24개의 토핑을 생각해 내기는 쉽지 않았다. 오죽하면 그중 하나는 쇠고기 육포였다.

크리스토퍼와 매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 주신 신뢰와 사랑과 헌신”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것이 공 장로 부부가 서로에게, 또 자녀들 개개인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나누는 사랑이다.

수잔은 말한다. “게릿은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형제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가족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경력

가족과 직장으로 바쁜 와중에도 공 장로는 고등평의원, 대제사 그룹 지도자,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 세미나리 교사,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을 비롯해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기꺼이 봉사했다.

그는 가정생활뿐 아니라 모든 부름에서도



지속적으로 몇 가지 특성을 드러낸다. 공 자매는 말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진정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공 장로는 아내를 칭찬한다. “제가 무슨 일을 하도록 요구받든지 간에 수잔은 항상 제 곁에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사람과 편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또한 항상 기꺼이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점이 참 감사합니다.”



왼쪽으로부터: 공 장로는 태국에서 방콕의 가톨릭 대주교인 프랜시스 자비에르 크리앵삭 코비타반지 추기경을 만났다. 아들 샘과 함께한 캐나다 여행처럼 공 장로는 아들과 단둘이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 2017년에 공 장로는 생명의 떡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들과 나누었다. 공 자매가 캄보디아인 환원의 집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칠십인으로 봉사함

게릿 더블유 공 장로는 2010년 4월 3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그는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받았다. 후에 그는 아시아 지역 회장이 되었다. 공 장로는 2015년 10월 6일에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 지지를 받았으며, 그 부름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앙 아메리카와 같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을 검토하는 국제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갔다.

그는 말한다. “이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 장로를 어떤 상황에 투입하면, 그 일에 관련된 이들은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느낍니다. 그의 지식 수준은 높지만, 그는 겸손합니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항상 잘 준비된, 설득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로서의 부름

공 장로는 러셀 엠 넬슨 회장께서 그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을 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선지자께서는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를 앞에 두시고 사랑을 담아 제 손을 잡으시며, 주님으로부터 온 이 성스러운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주님 부활하셨네,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97쪽) 겸손히,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확신하며 공 장로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2018년 3월 31일에 지지받았다. 주님에 의해 사려 깊게 준비된 그는 이제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으로서 성역을 베푼다. ■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간교함이 없는 사람

예 수께서는 사도들을 선택하시던 성역 초기에 당신께로 오는 나다니엘을 보셨다. 나다니엘의 선량함을 곧바로 알아보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¹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마음이 순수하고, 의도가 정직하며, 위선이나 기만이 없는 사람임을 아셨다. 주님께서는 이 의로운 고결성을 사랑하셔서 나다니엘을 사도로 부르셨다.²

울리세스 소아레스는 나다니엘과 같으며, 구주께서는 그 또한 사도로 부르셨다.

“부모의 빛”

네 명의 아들 중 막내인 울리세스는 1958년 10월 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의 부모인 아파레스도와 메르세데스 카레쇼 소아레스는 선교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던 고결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울리세스가 6세였던 1965년에 교회에 들어왔다.

울리세스가 청남이었을 때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던 오시리스 카브랄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파레스도 형제님이 모임에 빠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메르세데스도 매우 충실했어요. 울리세스는 부모님의 성실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천성적으로 선택된 울리세스의 성품은 주님의 길을 배우면서 꽃을 피웠다. “저는 부모님의 빛을 따르며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라고 소아레스 장로는 말한다. 그 빛을 따르면서, 그의 간증은 주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이 항상 저를 끌어내리고 그릇된 일을 하도록 부추기려고 애썼지요. 저는 이런 도전에 맞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지 터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며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주님도 당신의 역할을 다하시리라는 것을 청남 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분의 손과 그분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울리세스가 15살이 되었을 때, 감독님은 그에게 주일 학교 청소년반을 가르치라고 했다. 그가 가르친 공과 중 하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풍성히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교훈 한 가지를 배웠다.
 감독님은 올리세스를
 접견하는 동안 계명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적인
 준비도 강조했다.

오늘날 브라질 출신의
 선교사들은 모두 자신의
 선교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이 선교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선교 사업을 할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올리세스는
 자신의 선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작은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배운
 성실한 업무 자세와 빠른
 타자 실력 덕분에, 그는 한

올리세스는 그 전에도 몰몬경을 공부했으며,
 교회가 참됨을 항상 느꼈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는 반원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 강하게 간증하고 싶었다. 소아레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뒤에, 제 마음에
 감미로운 느낌이 들었고, 제가 올바른 길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세스는 자라면서, 만약 자신이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이나 요청하신 것보다 더 많이

올리세스 소아레스는
 그의 부모인
 아파레스도와
 메르세데스
 소아레스(왼쪽)의
 “빛을 따르며 교회에서
 성장했다.” 올리세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법을 소년
 시절에 배웠다.

회사에서 급여 대장 준비를 돕는 일자리를 구했다.

어려운 입사 시험을 통과한 후, 밤에는 기술
 고등학교에서 회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달
 십일조를 바치고 남은 돈은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했다. 1년 후, 올리세스는 회계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렇게 선교 사업에
 나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 3년 동안 셔츠 한 벌, 바지 한 벌, 양말 한 켤레,
 넥타이 하나, 여행 가방 하나 등 선교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달 하나씩 샀습니다.” 또한 그는
 부모와 지역 지도자들에게서 그가 필요로 했던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울리세스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선교 사업 초기에 엘리오 다 호샤 카마르고 회장 밑에서 봉사했는데, 카마르고 회장은 나중에 브라질에서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울리세스는 1978년 초에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말 스펜서 더블유 김블(1895~1985) 회장이 상파울루에 라틴 아메리카의 첫 성전을 헌납했다.

1980년 1월,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했던 울리세스와 그의 동반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버스를 8시간이나 타고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으로 갔다. 울리세스는 그곳에서 부모 형제를 만났고, 소아레스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다. 울리세스는 상파울루 성전에서 보낸 그 다섯 시간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그날 늦게, 울리세스와 동반자는 선교 임지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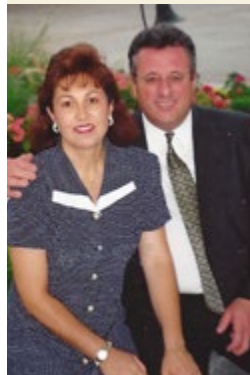
울리세스는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그로 인해 간증이 더욱 강화되었다. 귀환 후, 그는 일자리를 찾았고 지역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집에 온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그는 연합 스테이크 무도회에서 “모르가도 자매”와 우연히 마주쳤다. 울리세스는 선교 사업 시절 그녀의 지역 지도자로 봉사한 적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그동안 밀린 이야기와 선교 사업 이야기를 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3주 후, 그들은 교제를 시작했다.

로스나 페르난데스 모르가도가 여덟 살이었을 때, 언니인 마르가레취가 그녀를 교회에 데려가기 시작했다. 충실하고 어린 두 구도자는 결국 침례를 받아도 된다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지만, 각자 1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로스나는 침례 허락을 받기 전까지 9년 동안 교회에 참석했다.

울리세스는 상파울루 북부에 살았고, 로스나는 부모와 함께 상파울루 남부 지역에서 살았다. 대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데만 버스와 지하철로

소아레스 장로는 “자기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내인 로사나의 공이라고 말한다. 이 부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에서 함께 봉사했고 우연히 만난 지 2년 후인 1982년에 결혼했다(맨 오른쪽).



2000년 로사나와 함께한 소아레스 장로(위); 그의 가족과 함께(오른쪽 아래); 1979년 전임 선교사 시절(오른쪽 위)과, 신회원인 엘리제트르 바그너 드 수자 산투스(현재 아내)인 헤지나와 함께, 산투스 형제는 현재 에스피리토 산투스주에서 브라질 빌라벨라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소아레스 장로의 동반자인 김 피킷이다.

두세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도, 마르가레취와 남편인 클라우디오가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칠십인인 총관리 역원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후에 그의 동서가 된 소아레스 장로를 이렇게 회상한다. “울리세스가 로사나와 데이트하러 주말에 왔다가, 늦은 밤에 그렇게 멀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리세스에게 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자기들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다. “우리가 잠시 그를 입양한 셈이었지요.”라고 코스타 장로가 덧붙였다.

코스타 자매는 말한다. “그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곤 했어요. 우리도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분의 담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낡은 커튼을 덮고 자곤 했지만, 다음 날이면 로사나를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해했어요. 그는 여동생에게 잘해 주었고, 부모님도 그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울리세스와 로사나는 1982년 10월 30일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결혼했다.

소아레스 장로 부부와 잠시라도 같이 있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지 금방 드러난다. 소아레스 장로에게 로사나는 “선함과 사랑의, 그리고 주님과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모범이다.”³ 소아레스 자매에게 울리세스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소아레스 자매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언제나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의로웠어요. 가족도 항상 잘 보살폈고, 제게도 한결같이 잘 대해 주었죠. 교회에서 받은 모든 부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묵묵히 가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저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제일 앞에 둔다면 저도 제일 앞에 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소아레스 장로는 그의 아내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아내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영웅이며 영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인내합니다. 아내는 우리 가족을 단결시키며,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냅니다. 제 삶에서 일어난 일은 상당 부분 아내 덕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은 것에 관해 아내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 탓이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복음의 권능을 너무 크게 키워 주었으니까 말이오.’”

너그러운 마음

소아레스 부부의 맏이인 구스타보는 소년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살짝 빠져나가 상파울루 인근에서 열리는 페스타 주니나라는 연례 행사에 갔던 밤을 기억한다.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제 이름이 불리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신 아버지를 보았죠.”

부모에게 엄청난 걱정을 끼쳤지만, 올리세스는 구스타보를 꾸짖기보다는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

구스타보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제 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고, 부모님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올리세스는 가족에게 헌신적이다. 여러 해 동안 일도 바쁘고 여행 일정도 많았지만, 그는 자녀와 친해지기 위해 늘 시간을 냈다.

2018년 3월 31일 소아레스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지지받았을 때, 아마 구스타보와 두 여동생 레티시아 카라벨로와 나탈리아 소아레스 아빌라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 근면, 이해심, 겸손이 사도 직분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왜 아버지를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레티시아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지식이 가장 많은 바리새인을 택하지 않고, 어부를 선택하셨어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와 같으세요. 부모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모님이 사심도 없고,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잘못을 고쳐 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지요.”

나탈리아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 구주의 특별한 증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인정이 많으세요. 하늘의 영향력을 느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

소아레스 장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포르투갈 포르투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포르투갈어 문구 “Tudo vai dar certo”-“만사가 잘될 것입니다”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선교사 중 하나였던 타이 베넷은 이렇게 회상한다. “회장님이 저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만사가 잘되리라는 신앙과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십니다.”

또 다른 선교사였던 리처드 실즈는 소아레스 장로가 선교사들에게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 말도록 가르쳤다고 말한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도전’이라고 불렀죠. 그 충고가 제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일을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러한 믿음과 낙천주의가 편안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소아레스 장로 부부는 가난에서 오는 좌절감, 오랜 일과 공부로부터 오는 피로감, 건강 약화의 어려움, 유산과 사산, 부모 형제의 죽음이 가져오는 상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소아레스 장로가 좋아하는 다음 경전 말씀을 굳게 믿고 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예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⁴

소아레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도전은 진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할 때, 삶의 어려움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 충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막대를 굳게 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소아레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계속해서 계명, 복음, 경전 및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충실한 제자

율리세스 소아레스는 유능하고 준비된 사람이다. 경영학 석사 학위를 비롯하여 그가 받은 교육 덕에 그는 브라질 소재의 다국적 기업에서 회계사 및 감사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 덕에 그는 교회 재정 부서에서 일할 준비를 갖추 수 있었으며, 31세에 교회의 최연소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러한 준비 과정은 그가 선교부 회장으로, 그리고 2005년 4월 2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소아레스 장로는 2013년 1월 6일에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기 전에, 브라질 지역 회장단의 보좌와 브라질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었던 데일 지 렌런드 장로의 보좌로 봉사했다.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렌런드 장로는 그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을 즐겁게 추억한다.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소아레스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활기차고 헌신적이며 충실한 제자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음을 그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하라는 부탁을 받으면,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합니다.”

그는 소아레스 장로가 아프리카 성도들과 쉽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한다. 그 지역에서 그가 받은 첫 임무 중 하나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카낭가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는 것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고 헌신적인지에 관해

소아레스 장로는 페루(왼쪽), 가나(아래), 또는 그가 섬기고 성역을 베푼 어느 나라의 성도들과 함께 있든지 간에 “사람들을 쉽게 사랑한다”라고 클라우드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말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렌런드 장로는 말한다.

칠십인 회장단에서 소아레스 장로와 5년 반 동안 함께 봉사한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는 소아레스 장로를 합의 도출자라고 부른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자기 생각을 비추어 봅니다. 그는 회의에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가 경쟁적으로 울리기보다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조율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소아레스 장로는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 및 프랑스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해 겸손하다.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여러 해 동안 바쁜 일과 여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아레스 장로는 삶에서 항상 아내와 자녀들과 손주들(왼쪽 아래)을 우선에 두어 왔다. 그는 또한 시간을 내어 아내와 함께 뛰어난 요리 실력을 연마해 왔다.(맨 왼쪽)

필요한 그 은사는 교회에 축복이 된다고 클레이튼 장로는 말한다. 소아레스 장로는 교회 회원들 대다수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클라우드오 코스타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울리세스는 소심적부터 지도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유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쉽게 사랑하죠. 그는 구주의 참된 제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며, 그를 주님의 사도로 지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대변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소아레스 장로는 순수하며, 간교함이 없고, 흠 없는 구주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용모에서 보이는 빛과, 따뜻한 미소와 자애로운 태도를 통해 수많은 개인과 가족이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이 주는 교훈에 따라 생활하려는 더 큰 소망을 지니겠다는 영감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에드워드 파트리지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그의 마음이 내 앞에서 순결함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옛날의 나다나엘과 같음이니라.”⁵ 주님은 또 하이럼 스미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그의 마음이 고결하므로 또 내 앞에서 옳은 일을 그가 사랑하므로 나 주가 그를 사랑함이니라.”⁶

울리세스 소아레스에 관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

주

1. 요한복음 1:47.
2.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1916), 221~222, 226~227쪽 참조.
3. “선지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합니다”,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98쪽.
4. 교리와 성약 112:10.
5. 교리와 성약 41:11.
6. 교리와 성약 124:15.

감독이

와드 회원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여덟 가지

내가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배운
여덟 가지 진리가 있다.

마이클 마이어

내가 감독으로
봉사한 것은
훌륭한 기회였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진리를
배웠다. 이 여덟 가지가
모든 것을 망라하지는
않겠지만, 감독이라면
으레 와드 회원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들을
나누고 싶다.

1. 감독은 와드의 모든 회원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감독이 와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연결된다. 감독은 성찬식에서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껏 자신이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정심과 연민을 느낀다. 감독이 연단에 서서 와드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감정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감독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을 염려한다.



2. 감독은 회원들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감독은 봉사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는 보통 일요일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평일 밤에도 퇴근 후에 와드 회원들을 방문하고, 접견하며, 돌보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

감독이 매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와드 회원들의 신앙과 기도 덕분이다. 감독으로 새로 부름받았을 때, “감독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회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응답되며, 감독은 이런 기도에서 오는 힘을 얻고 그 영향력을 느낀다. 주님께서는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감독의 머리 위에 응답을 부어 주신다.

3. 감독은 종종 자신이 그 부름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부름을 받은 지 3~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아는 감독들 중 자신이 부름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느꼈던 감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안다.”

감독은 자신이 그 부름에 대한

자격을 점차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름을 절대 잘 수행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힘들어한다. 그는 필요할 때 현명하게 권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며,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부름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따금 의문이 들 것이다.

4. 와드 회원들과 협의할 때 하나님의 영은 감독을 통해 일할 수 있다.

감독으로 봉사했을 때 했던 경험 중 어떤 것이 가장 그림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감독의 권세에 따른 영의 강한 영향력이라고 대답한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를 위로하는 것이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든, 혹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든 간에, 충실한 감독은 하나님의 영과 계시의 영을 동반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전 와드의 한 회원이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도움을 달라고 했다. 새로운 와드로 이사한 그녀는 자신이 그 와드의 감독님에게 조언을 구하려 가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는 감독 부름에서 해임된 후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그녀를 기꺼이 돕고 싶지만 나에게서는 더 이상 감독의 열쇠가 없다는 것과, 그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려면 그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감독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그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독님을 만났으며, 감독님은 마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가장 좋은 해법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물론 감독도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은 감독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신다.



5. 감독도 사람이다. 그도 이따금 실수를 하고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감독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는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편견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영은 감독이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지만, 그렇더라도 감독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와 연약함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 인간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부름을 덜 존중하거나 그의 권고에 주의를 덜 기울여서는 안 된다. 감독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최소한 그것이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6. 감독은 늘 와드 회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싶어 한다.

매일 감독은 그날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었는지, 또는 누구를 도왔어야 했는지를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모든 회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내게는 생업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과 도움이 절실한 다른 회원들이 있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회원을 정기적으로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한 회원을 방문하라는 영의 느낌을 받았다. 대체로 그런 방문에서는 “감독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방문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증거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영을 느꼈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활동 회원이 문 앞에서 환영해 줄 때도 기분이 좋았다. 이 선한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며,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으며, 대체로 신권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감독과 이따금씩 일대일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감독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더 많이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7. 감독에게는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 여러분이 필요하다.

감독으로서 나는 와드의 회원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이렇게 물었다. “그분의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누구죠?” 이것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와드와 스테이크 회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감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분명 감독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방문할 수 있고, 또 방문할 것이다. 그러나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역이다. 때로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왜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셨다.(요한복음 13:34) 감독은 성역을 와드 회원들의 삶에 “더 많이 참여하는” 영감받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8. 감독은 자신의 양 떼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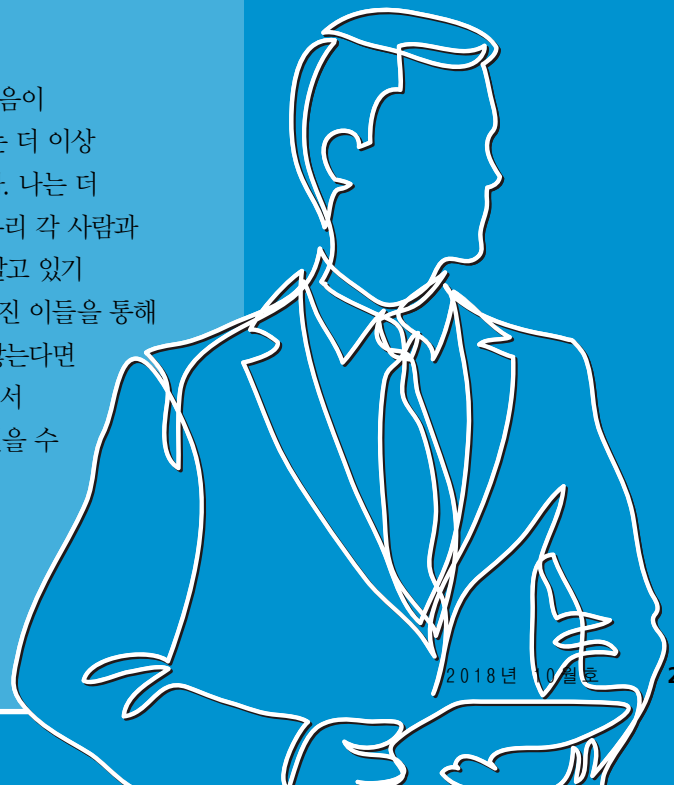
밤이든 낮이든, 신권 축복을 줄 때든, 다루기 힘든 아이에게 조언을 줄 때든, 혹은 사고 현장에 달려갈 때든, 언제나 그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한다. 그가 항상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는 그가 책임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필요할 때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감독은 그럴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며, 감독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 성스러운 부름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겸손해진다. 봉사하는 동안 나의 믿음은 지식으로 발전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이 참되다고 믿지 않는다.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일상과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분께서 당신의 종들, 특히 신권 열쇠를 가진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감독으로 봉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복음이 참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감독이 봉사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제 8 장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나다

다음은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8장이다. 이 책은 14개 언어로 출판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1장~6장까지는 3월~8월호 리아호나에 게재되었으며,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kor에서 47개 언어로 볼 수 있다.

18 28년 7월 초, 번역 원고를 손에 든 조셉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몰몬경을 책으로 만들어 그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했다. 그러나 스미스 가족 중에는 출판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셉은 원고도 안전하게 지켜야 했고, 인쇄업자도 찾아야 했으며, 새로운 경전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하는 일도 해야 했다.

게다가 몰몬경처럼 긴 분량의 책을 출판하는 데에는 그 비용도 적잖이 들어갈 것이었다. 번역을 시작한 뒤로 조셉은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가 버는 돈은 전부 식구들의 생계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조셉의 부모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땅 한 뼘이 없는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다. 조셉 주변에서 이 일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마틴 해리스뿐이었다.

조셉은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번역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는 원고가 도난당하거나 표절당하지 않도록 몰몬경의 저작권도 신청했다.¹ 조셉은 마틴의 도움을 받아 몰몬경을 출판할 의향이 있는 업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에그버트 그랜던이었다. 조셉과 동갑인 그는 팔마이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랜던은 몰몬경이 허위라 생각하여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조셉과 마틴은 낙담하지 않고 계속 출판업자를 물색했고, 드디어 인근 도시에서 뜻이 있는 사람을 한 명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과 계약을 하기 전에 팔마이라로 돌아와서 그랜던에게 몰몬경을 출판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았다.²

그랜던은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5,000권을 인쇄해 제본하는 비용을 3,000달러로 책정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받기를 원했다. 인쇄 비용은 이미 마틴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만한 금액을 마련하려면

인쇄소에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에브너는 인쇄소 직원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인쇄소를 사용하면서 아직 제본이 끝나지 않은, 판매 전의 몰몬경 인쇄본을 보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에브너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이른바 “황금 성서”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겨울에는 몰몬경 발췌문에 풍자 논평을 곁들여 신기도 했다.¹¹

그 사실을 알게 된 하이럼과 올리버가 에브너를 찾아갔다. 하이럼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무슨 권리로 몰몬경을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는 겁니까? 우리가 저작권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자 에브너는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요. 나는 인쇄소에 돈을 냈으니 나 좋을 대로 할 거요.”

하이럼은 물려서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부터 그 신문에 더는 몰몬경 내용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브너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요.”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이럼과 올리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하모니에 있는 조셉에게 진갈을 보냈고, 조셉은 즉시 팔마이러로 돌아왔다. 조셉이 도착했을 때, 에브너는 인쇄소 사무실에서 태평하게 자신이 발행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바빠 보이시는군요.” 조셉이 말했다.

“안녕하시오, 스미스 씨.” 에브너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코올 선생님, 몰몬경과 몰몬경의 출판권은 제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십시오.”

그러자 에브너가 외투를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주먹을 맞부딪치며 고향을 질렀다. “나와 싸워 보겠다는 말이요? 그럼 당장 덤벼 보시오!”

조셉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외투는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도 춥고, 저는 선생님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조셉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책의 내용을 신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에브너는 여전히 씩씩거렸다. “그렇게 잘났으면 옷 벗고 덤벼 보라니까!”

조셉이 대답했다.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태 모르셨다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좋을 게 없으니까요.”

에브너는 자신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 에브너는 조셉의 말에 입을 다물었고, 그 뒤로는 신문에

몰몬경을 발췌해 신는 행위를 더는 하지 않았다.¹²

솔로몬 체임벌린이라는 목사는 캐나다로 가는 길에 팔마이러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그곳에서 “황금 성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토머스 마쉬처럼, 그는 평생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었고, 자신이 보았던 것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은사를 믿는 교회도 몇 곳 있었지만,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나 신권은 없었다. 솔로몬은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상에 알리실 시기가 오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머물던 집의 식구들이 조셉 스미스와 금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솔로몬은 스미스 가족을 찾아가서 그 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스미스 가족의 집으로 찾아간 솔로몬은 문 앞에서 하이럼을 만났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이럼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고 화답했다.

솔로몬이 물었다. “이 책에 시현이나 계시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하이럼은 “네, 저희 가족은 모두 시현을 믿습니다.”라고 답했다. 솔로몬은 몇 년 전 자신이 보았던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시현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지만, 옛날 사도들의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권능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으키실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럼을 비롯한 스미스 가족은 솔로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솔로몬이 말했다.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것들을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럼은 솔로몬에게 스미스 농장에서 묵어 가도록 권했다. 또한 그는 솔로몬에게 몰몬경 원고를 보여 주었다. 솔로몬은 이틀간 원고를 읽어 본 뒤, 하이럼과 함께 그랜딘의 인쇄소 사무실로 가서 인쇄된 몰몬경 중 64쪽 분량을 얻었다. 솔로몬은 제본도 되지 않은 몰몬경 낱장을 들고 캐나다로 가면서,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¹³

1830년 3월 26일, 제본을 마친 물문경 초판본이 그랜딘의 인쇄소 1층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갈색 송아지 가죽으로 단단히 장정된 이 책은 가죽과 풀, 종이와 잉크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책등에는 금색 활자로 물문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¹⁴

루시 스미스는 새로 나온 경전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겼다. 그녀에게 이 책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고대에 주셨던 성약을 회복하실 증표였다. 표제지에는 이 책이 나온 목적이 나와 있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축복을 선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온 세상에 명백히 전하는 것이었다.¹⁵

그 책 뒷부분에는 세 사람의 증인과 여덟 사람의 증인이 남긴 간증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직접 금판을 보았고, 그 번역이 참됨을 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내용이었다.¹⁶

이러한 간증에도 불구하고 물문경을 허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루시는 알고 있었다. 많은 이웃들은 경전은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민족을 당신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음을 깨닫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래전에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으로 물문경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팔마이라에서는 물문경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¹⁷ 그러나 물문경을 읽고 그 가르침에 담긴 힘을 느끼고서, 주님께 무릎 꿇고 그것이 참된지를 알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루시는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문경을 알려 주고 싶었다.¹⁸

물문경이 출판되자, 조셉과 올리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몇 달 전에는 침례 요한이 약속한 대로 고대에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그 권세를 통해 이제 조셉과 올리버는 자신들이 침례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성신의 은사도 줄 수 있었다.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했다.¹⁹

그 무렵 휘트머 가족의 집에 머물고 있던 조셉과 올리버는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서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신자들이 그들을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따르겠다는 동의를 해야만 했다. 주님께서서는 그 외에도 교회의 다른 역원들을 성임하고 침례받은 이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라고 명하셨다.²⁰

1830년 4월 6일, 조셉과 올리버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고자 휘트머의 집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법률에

따라 신생 교회의 첫 번째 회원이 될 여섯 사람을 선택했다. 집 안팎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십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²¹

주님께서 이전에 지시하신 대로, 조셉과 올리버는 회중에게 자신들을 하나님 왕국의 지도자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고, 조셉은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했다.

그런 다음에는 자리를 바꿔서 올리버가 조셉을 성임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빵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성찬을 집행했다. 또한, 그들은 침례받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며 성신의 은사를 주었다.²² 주님의 영이 그곳에 쏟아부어졌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찬양했다.

사람들은 모두 함께 기쁨을 느꼈다. 조셉은 새로운 교회 전체에 주는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백성들이 성스러운 역사를 기록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조셉의 역할을 증언해야 한다고 일깨우시며 이렇게 명하셨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에게 내가 영감을 주어 선을 위하여 큰 권능으로 시온의 대업을 맡고 나아가게 하였고,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1830년 4월 6일, 조셉과 올리버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고자 휘트머의 집에서 만났다.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²³

모임이 끝난 후, 조셉은 물가에 서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침례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리를 찾고자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마침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조셉 일세가 물에서 나오자, 조셉은 그의 팔을 부축하여 독 위로 올리고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조셉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먹였다. “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침례받는 것을 보게 되다니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²⁴

그날 저녁, 조셉은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숲으로 향했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조셉은 친구와 가족의 눈을 피해 혼자 있고 싶었다. 첫번째 시현을 본 후로 십 년 동안,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을 느꼈으며, 천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은사를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으며, 그분의 권능과 은사로 물문경을 번역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셨고, 고대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신권을 조셉에게 주셨다.²⁵ 조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날 밤 조셉 나이트와 올리버가 숲으로 왔을 때, 조셉은 그곳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는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²⁶ ■

인용된 문헌은 모두 saints.lds.org/ko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온라인 saints.lds.org/kor에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

1.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I:76—81.
2. “Prospect of Peace with Utah,” *Albany Evening Journal*, May 19, 1858, [2]; “From the Troy Times,” *Albany Evening Journal*, May 21, 1858, [2];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29
3. 교리와 성약 19편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DC 19], in *JSP*, DI:85—89; and Knight, *Reminiscences*, 6—7 참조.
4. McBride, “Contributions of Martin Harris,”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4, in *JSP*, HI:352 (draft 2).
5. John H. Gilbert, Statement, Oct. 23, 1887, Church History Library; Indenture, Martin Harris to Egbert B. Grandin, Wayne County, NY, Aug. 25, 1829, Wayne County, NY, Mortgage Records, volume 3, 325—26, microfilm 479,556, U.S. and Canada Record Collection, Family History Library;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DC 19], in *JSP*, DI:85—89.
6.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I:76—81;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Porter, “The Book of Mormon,” 53—54.
7.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8]; Joseph Smith to Oliver Cowdery, Oct. 22, 1829, in *JSP*, DI:94—97.
8.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2];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in *JSP*, R3, Part I:xxvii. 주제: Printing and Publishing the Book of Mormon[물문경의 인쇄와 출판]
9.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Nov. 6, 1829, in *JSP*, DI:100—101; Mosiah 3:18—19: 5:5—7; 4 Nephi 1:17; 또한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Dec. 28, 1829, in *JSP*, DI:101—4 참조.
10. Thomas B. Marsh, “History of Thomas Baldwin Marsh,” *LDS Millennial Star*, June 4, 1864, 26: 359—60; June 11, 1864, 26: 375—76.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9]. 에브너 코올이 물문경에서 발췌한 부분의 예를 보려면, “The Book of Mormon,” *Reflector*, Sept. 16, 1829, 10; “Selected Items,” *Reflector*, Sept. 23, 1829, 14; “The First Book of Nephi,” *Reflector*, Jan. 2, 1830, 1; and “The First Book of Nephi,” *Reflector*, Jan. 13, 1830, 1 참조. 주제: Critics of the Book of Mormon[물문경 비난 세력]
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9]—[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66—68.
13. Chamberlin, *Autobiography*, 4—11.
14.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I:76—81;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Book of Mormon,” *Wayne Sentinel*, Mar. 26, 1830, [3]. 일부 부수는 양가족으로도 재분되었다.
15. Title Page of Book of Mormon, circa early June 1829, in *JSP*, DI:63—65; 또한 Lucy Mack Smith to Solomon Mack, Jan. 6, 1831,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16. Testimony of Three Witnesses, Late June 1829, in *JSP*, DI:378—82; Testimony of Eight Witnesses, Late June 1829, in *JSP*, DI:385—87.
17. Tucker, *Origin, Rise, and Progress of Mormonism*, 60—61.
18. Lucy Mack Smith to Solomon Mack, Jan. 6, 1831,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19.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I:10; 교리와 성약 27:12~13 (Revelation, circa Aug. 1830, in Doctrine and Covenants 50:3, 1835 edition, at josephsmithpapers.org); Oliver Cowdery to Phineas Young, Mar. 23, 1846,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Documents Dating through June 1831,” in *JSP*, DI:xxxvii—xxxix; 또한 Cannon and others, “Priesthood Restoration Documents,” 163—207 참조. 주제: Restoration of the Melchizedek Priesthood[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30
2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7, in *JSP*, HI:326—28 (draft 2).
2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 in *JSP*, HI:364 (draft 2); Stevenson, *Journal*, Dec. 22, 1877; Jan. 2, 1887; An Act to Provide for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Societies (Apr. 5, 1813), *Laws of the State of New-York* (1813), 2:212—19. 주제: Founding Meeting of the Church of Christ[그리스도 교회의 창립 모임]
2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38, in *JSP*, HI:364—71 (draft 2).
2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 in *JSP*, HI:366; 교리와 성약 21편 (Revelation, Apr. 6, 1830,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y of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Oct. 1, 1842, 3:928—29.
2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12]; Knight, *Reminiscences*, 8; 또한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10 참조.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8, in *JSP*, HI:372 (draft 2); Joseph Smith, “Latter Day Saints,” in Rupp, *He Pasa Ekklesia*, 404—5, in *JSP*, HI:506.
26. Knight, *Reminiscences*, 7.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

여러 권으로 된 새로운 교회 역사서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욱 잘 기억하고,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 권으로 된 새로운 교회 역사서가 출판됩니다.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이야기 형식의 이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된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제1권인 *진리의 표준, 1815~1846년*은 현재 완성되었으며, 1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지역에 배부됩니다.

성도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성약을 회복하셨는지를 들려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격동과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복음을 회복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회복된 성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승영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도들은 1815년에 수많은 죽음과 질병 및 파괴를 몰고 온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시작점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주님께서 성약을 회복하신 과정에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를 통해 성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약은 악과 슬픔, 고통,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구주의 속죄를 통한 치유를 약속하며, 우리의 관계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관하여 그분께서 계시하신 바를 고려한 것으로, 성약을 통해 우리는 구주께 결속되며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교리와 성약 1:17, 22)

이러한 도입 장면에서부터 전 세계에 배부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책이 그들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과 그들 간의 성약에 관한 이야기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를 통해 성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약은 악과 슬픔, 고통,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구주의 속죄를 통한 치유를 약속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삶에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이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줍니다.(교리와 성약 130:2 참조)

진리의 표준의 첫 여덟 장은 올해 리아호나에 연재되었습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연재는 끝나지만, 이 이야기는 saints.lds.org/kor, 복음 자료실 앱 및 출판물(store.lds.org에서 주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 중 어떤 방법으로든 이 책을 계속 읽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신성한 방식과 계획

성도들은 선지자들이 성역을 베풀 때 활용하는 신성한 방식을 따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과거를 거울삼아,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배우도록 돕습니다. 경전에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¹ 모로나이는 물몬경의 독자들에게 “주께서 ...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라고 호소했습니다.(모로나이서 10:3)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는 영의 증거를

받도록 준비시켜 줍니다.(야곱서 4:13; 또한 모로나이서 10:4~5 참조)

우리의 하늘 부모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승영을 계획하셨다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신성한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닐 수 있으며, 주님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써 변영에서 비롯되는 교만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 니파이인들이 “심히 부하여지기 시작”했던 시기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과 부로 인해 몰락했던 몰몬경의 다른 시기와는 달리 그들은 이때 다른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나, 그들의 세력이나, 그들의 변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지 아니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 기억하기를 더디 하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 심히 겸손하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 기억”했기 때문에 성약을 지켰고 의롭게 남았습니다.(앨마서 62:48~50 참조)

우리는 성도들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던 불완전한 사람들이 겪었던 신앙의 시험, 마음속 고통과 기쁨, 계시와 결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은 삶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통찰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보다 더 잘 알려진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셉이 마음으로 느낀 것과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투쟁을 벌였는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어느 교회도 “신약전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의 용서를 받고자 했던 그의 진심어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² 조셉은 머릿속으로는 어느 교회가 참된지, 혹은 모든 교회가 그른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들 중 하나라도 참된 교회가 있어서 자신이 갈망했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머리와 마음의 부조화를 겪던 조셉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조셉을 용서하셨고, 그가 직면한 난제를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³

조셉과 그의 가족을 비롯하여 주님의 회복된 성약을 받아들인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또 장차 있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성도들은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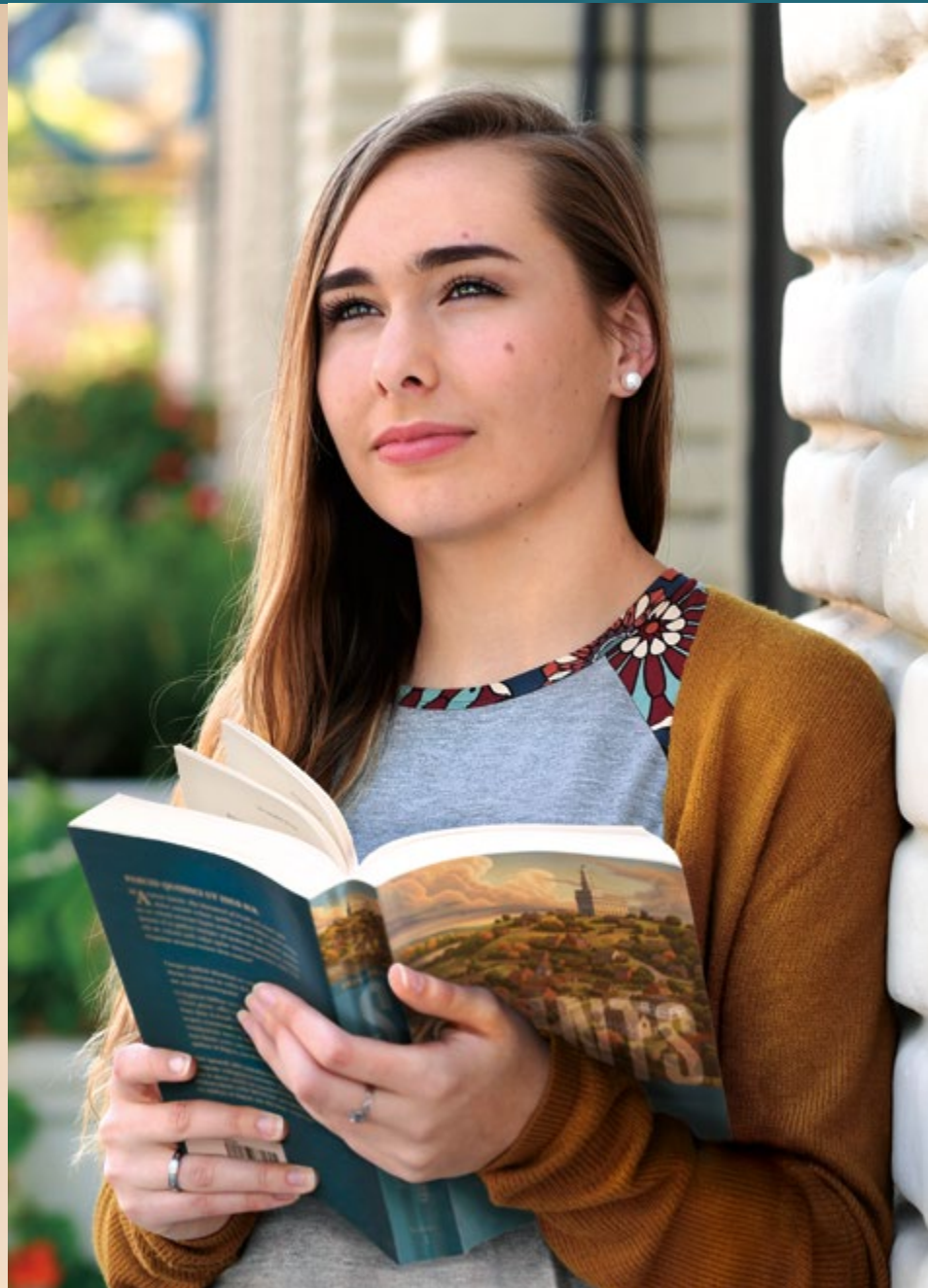
시련 중에 주님을 신뢰함

성도들 1권에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고 그분의 뜻을 행했던 아만다 반스 스미스와 그녀의 가족에 관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⁴ 아만다의 남편과 그녀의 아들 한 명은 미주리주 솔 크리크의 작은 정착지에서 열다섯 명의 후기 성도와 함께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만다가 그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그녀를 지탱해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용기를 주셨고, 심하게 부상당한 아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⁵

성도들은 아만다가 극도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지 보여 줍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고통스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지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또 장차 있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 책은 또한 보여 줍니다.

솔 크리크에서 아만다의 가족과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선지자 조셉은 성도들이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느니 자신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날 그는 파웨스트에 있던 성도들의 주요 정착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던 미주리주 민병대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붙잡혔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 후에도 조셉은 구금된 채로 차갑고 비좁은



미주리주 리버티의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으셨는지, 얼마나 더 과부들과 고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실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시며 ... 연민의 정으로 애가 끊으시겠나이까?” (교리와 성약 121:3)

성도들은 시련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이나 축복을 거두셨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되는 것은 우리를 정련하고 영원한 해의 왕국을 위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니파이후서 2:11 참조) 조셉은

구주께서 무한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를 승영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엘마서 7:11~13 참조) 고통에 찬 조셉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온갖 종류의 고난을 열거하셨습니다.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교리와 성약 122:7~8)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우리는 고난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조셉은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드러워질 것”임을 감옥에 있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겪은 억울한 일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지금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⁶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성도들을 출판하도록 의뢰하고 승인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만다의 사례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따라 악과 고통을 막지 않는 편이 옳다고 여기실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항상 염두에 두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비롭고 친절하십니다.

회복된 성전의 축복들

성전보다 이러한 자비와 친절함이 분명히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회복된 성전 축복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권은 1846년에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이 나부 성전에서 성스러운 의식들을 받으면서 끝이 납니다. 제2권은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되고 1893년에 성도들이 그곳에서 의식을 받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제3권은 유럽 성도들이 1955년에 스위스 성전으로 집합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제4권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로,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견했던 대로 온 세상 곳곳에

성전이 세워지며, 전 세계의 성도들이 승영의 의식을 받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성약을 맺고 세상의 악과 고통을 비롯한 타락의 영향을 이겨낼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더 나아가 부활에 이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인봉될 권능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성찬식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기억의 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던 성도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경험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1:1 참조) 그분은 조셉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교회 역사가들에게 “교회 기록과 역사를 계속하여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7:3) 주님께서는 교회 역사에 “교회의 유익[과], … 일어나는 세대들”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69:8)

이러한 계시와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염두에 두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10년 전에 성도들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책을 읽을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깨닫게 되며, 좋은 시기뿐 아니라 나쁜 시기에도 충실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승영으로 인도하는 성약을 더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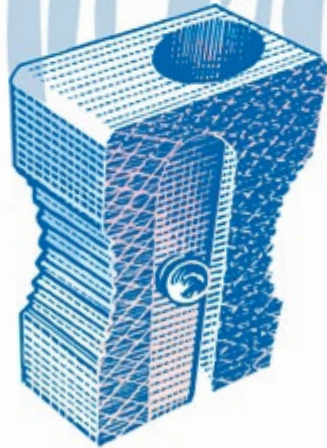
1. 이러한 예에는 니파이(니파이전서 17:23~43), 베냐민 왕(모사이야서 1장), 랍하이(모사이야서 7장), 엘마에게 나타난 주님의 천사(모사이야서 27장), 엘마(엘마서 9:10), 몰몬(몰몬서 3:17~22), 그리고 모세(출애굽기 13:3)가 포함된다.
2. Joseph Smith, in “History, circa Summer 1832,” 2, josephsmithpapers.org.
3. See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3, josephsmithpapers.org.
4. See “Revelation, 12 January 1838—C,” [1], josephsmithpapers.org.
5. 성도들, 제1권, 제30장, “천사처럼 싸우라” 참조.
6. “Letter to Presendia Huntington Buell, 15 March 1839,” [1], josephsmithpapers.org.

달걀, 퓨즈, 그리고 신앙

우 리 가족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집의 계약금을 치를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런 목표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 발로 오기만을 기다리며 텔레비전을 보는데 주말을 허비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칠레 북부에 있는 채굴 회사의 운전사로 일하며 집을 떠나 광산에서 4일을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을 쉰다. 수입을 보충하고 집을 마련할 돈을 모으기 위해 우리는 달걀을 팔기로 했다. 우리의 계획은 친구와 이웃 및 교회 회원들에게 주문을 받은 다음, 도매업자에게 매주 약 1,000개의 달걀을 사서 가져온 후, 토요일과 월요일에 그들에게 계란을 배송하는 것이었다.

아내 로라와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배송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달걀을 사러 가던 길에 사고가 생겼다. 우리 아이가 금속으로 된 작은 연필깎이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시가잭(차량에서 담뱃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기구—웁긴이)에 정확히 떨어진 것이었다. 불꽃이 일었고 우리 화물차는 완전히 방전되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퓨즈가 끊어진 것이었다.



그 속으로 된 작은 연필깎이가 시가잭에 떨어졌고, 우리 화물차는 갑자기 멈춰 섰다. 퓨즈가 끊어진 것이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뒤에 오는 차들의 통행을 막은 채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너무 좌절스러워서 울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며 도와주시리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했다. 마음이 침착해졌다. 나는 가만히 앉아 불평만 할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에게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로라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만 해.” 우리는 기도했고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 나서 로라는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차를 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몇몇 사람들이 차에서 뛰어나와 나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차를 200미터 정도 밀었다. 차를 주차하고 나서 보니, 바로 앞에 차량용 스테레오 상점이 있었다.

나는 끊어진 퓨즈를 찾은 뒤 상점 안으로 걸어가 “이것과 같은 게 있나요?” 하고 물었다.

점원은 “물론이죠.”라고 대답했다.

나는 퓨즈를 사서 제자리에 장착했다. 곧바로 차의 시동이 켜졌고 우리는 출발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달걀 도매상점은 문을 닫기 직전이었다. 우리는 달걀을 샀고 배송을 했다.

힘겨운 일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보일 때 그분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안다. ■
알바로 알카이노, 칠레 안토파가스타

어머니가 적어 놓으신 참조 성구

어느 날 저녁, 나는 다가오는 한 와드 대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한 주 동안 경전을 공부했고 훌륭한 가르침과 통찰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내가 스테이크 회장으로서 그 와드 회원들에게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나는 영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 그런 다음 경전을 펼쳐 다시 읽기 시작했다. 곧바로 머릿속에 감독과 최근 논의했던 와드 목표가 떠올랐다. 그 목표 중 하나는 친구 및 이웃들과 복음을 나눌 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책자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개인 공부 시간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책을 꺼내어 아무 페이지나 펼쳐 보았다. 펼쳐진 페이지에서 나는 누군가가 적어 놓은 참조 성구를 두 개 발견했다. 그것은 니파이전서 8장 8~11절과 니파이전서 11장 21~22절이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것은 어머니가 손으로 쓰신 참조 성구들이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는 몇 년 전, 80번째 생일이 지난 지 두 달 뒤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용기와 이타심을 보이는 모범이 되셨으며, 언제나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보셨다. 또한 경전을 사랑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왜 이 구절들을 적어 놓으셨는지 알아보려고 경전을 펼쳤다. 그 구절들을 읽었을 때 나의 마음이 즉시 열려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복음의 달콤한 열매를 맛본 교회 회원들이 다른 이들도 같은 열매를 찾고 있음을 가끔 잊어버린다는 단순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 주어야 한다.

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며 사랑스러운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 책에는 이름이나 다른 메모, 혹은 그 책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다른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나는 영적인 느낌들이 이 순간을 향해 연결되었음을 돌이켜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영은 내가 기도로 구했던 대로 내 생각을 인도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나의 어머니는 알지 못하셨지만, 여러 해 전 어머니가 이 참조 성구를 적어 놓으셨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녀의 아들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

더글러스 헤저, 미국 네바다주

한 와드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펼쳤고, 어머니가 적어 놓으신 참조 성구를 발견했다.



키예프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

가 족과 나는 루마니아에서 차로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가서 2010년 8월에 열릴 성전 헌납식에 참여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 성전이 루마니아와 몰도바 선교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가게 될 성전이었기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14시간을 여행했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온 또 다른 일행을 만났다. 우리는 모두 키예프에서 이 성스러운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에 행복했다. 헌납식 당일에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 1층 방에서 방송으로 헌납식을 보도록 배정되었다. 뿔뿔은 실망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지자와 함께 해외 왕국실에서 헌납식에 참여하기를 바랐었다. 일부는 차라리 루마니아 집회소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집에서 보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루마니아에서 온 이 회원들이 당신의 집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헌납식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응답을 받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이 1층으로 내려와 주춧돌을 놓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응답일 것이었다! 나는 선지자가 루마니아 성도들에게 와서 인사해 주기를 기도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다. “다만 제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입니다.”



정초식이 끝나고 몬슨 회장님은
해의 왕국실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있던 방 옆을 지나가셨다. 갑자기 나는
일어서서 그분이 우리 방으로 오시도록
초대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느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선지자님!
이리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분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았다. 그런데 잠시 뒤, 그분이
되돌아오셨다. “루마니아에서
오셨다고요!”라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와 인사를 나누셨고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찬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행복으로 충만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루마니아에서 온
이 회원들이 당신의 집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방을 나가셨을 때 더
이상 서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축복받은 방에
있었다고 느꼈다.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

도루 바실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노력을 받아 들이신다는 미소

어느 날 저녁, 우리 와드는 여러
시간을 들여 준비한 활동을 했다.
활동이 끝난 뒤, 어린 구도자 한 명이
내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몇 분 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물었다. “감독님,
제가 언제 다시 와야 하나요?” 내가
일요일이라고 말하자 그 소년은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아뇨, 다른 활동은 또
없나요?” 그는 우리 와드 청소년들과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기에 다시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활동에 참가한 방문객 부부와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소감을
 물어보았다. 그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줄곧 평안을
느꼈어요.” 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느라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 대답에 놀랐다.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것이 바로 성신이죠?” 나는 놀라서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그 활동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그날 밤 활동이 다
끝났을 때, 나는 그저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싶었다. 나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구도자들과 나는 대화를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주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노력을 받아들이신다는 미소였다. 그
순간 오늘 활동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나는 와드 회원들의 부지런함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 세 구도자들이
마음에 감명을 받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미소가 우리가 했던
일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임을
이해했다.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무척
감사했다. 그분은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신다는 미소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당신게로 데려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크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한다.(교리와 성약 18:15
참조) ■

프랭클린 로메로, 에콰도르 마나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후기 성도의 소리는 모든 복음 주제와
관련된 실화를 신지만,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복음대로
살면서 용기를 보이는 것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lds.org로 보내
주세요.(기사나 피드백 제출) 클릭)

“어려운 말씀”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이나
반신반의 대신에
신앙을 선택할
자유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우리의 동기

민디 셀루
교회 잡지

제자의 길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축복들로 가득 차 있다.¹ 하지만 그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쉽거나 편하지 않을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노력과 희생을 요하며, 때로는 계명대로 생활하고 희생할 동기를 찾기가 힘들 때도 있다.

청년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아마 새로운 책임들을 수행하고, 삶이 바뀌는 결정을 내리고, 남은 삶 동안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갈지를 계획하느라 바쁠 것이다. 게다가 교회의 정책이나 역사 혹은 복음 교리 중에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유혹도 있을 것이며, 물론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계획에 관한 질문도 있을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따금 궁금해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너무 많은 노력을 요한다고, 혹은 질문은 많은데 답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동기이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사는 방식으로 생활하는가? 여러분은 왜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도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는가?

여러분이 누구이든 혹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키움으로써 동기를 찾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복음대로 생활할 동기를 찾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특별한 시험이 아니다. 심지어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사람들은 그분이 가르치신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 원리들에 잘 순종하지 못했다.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릴 만한 개념, 즉 당신께서 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그분의 제자 중 몇몇이 듣고 있었다.(요한복음 6:35~58 참조) 그들은 회의적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요한복음 6:60)

그들이 이 교리를 믿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요한복음 6:61) 그분의 제자 중 많은 이들이 의심에 앞서 신앙을 행사하는 대신에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요한복음 6:66)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그들도 “가려”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사실상 유일한 대답을 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한복음 6:67~68)

우리가 지닌 동기의 근원

베드로는 자신이

지닌 동기의 근원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하는 일을 하는 이유의 핵심에 그 동기가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간증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9; 강조체 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사업에 대해 것처럼 강한 확신을 얻음으로써 복음대로 계속 생활할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어렵게 보일 때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할 때조차도 말이다.

“어려운 말씀”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이나 반신반의 대신에 신앙을 선택할 자유도 항상 있을 것이다. 칠십인 회장단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믿겠다는 결심은 우리가 하는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²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말씀”의 반대편에서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가[기]”가 쉬울 때에도 충실하게 남아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범을 따른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다른 지도자들의 권고에 귀 기울인다.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든다.] …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딘다.]”³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다.] … 자신이 믿는 진리에 집중[하고] 그



진리로 생각과 마음을 채[운다.]

… 기본적인 복음 진리부터 시작[한다.]”⁴

2. 경전을 가까이하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몰문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본다.]”⁵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3. 계속해서 계명을 지킨다.

“간절히 구하고, 계명대로 살 때에만 진실한 의문에 대한 답이 [온다.] … 우리 신앙[은] 지금의 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⁶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 여러분이 구하는 지식과 이해를 받게 될 것이다.”⁷

결국 우리의 동기는 베드로가 말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고 영생의 말씀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어려운 말씀”보다 우선하는가?

충실하게 복음대로 생활할 때 따르는 보상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 그 보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묻는다. “그렇게 생활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복음의 가르침은 이렇게 답한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하나님의 거처에 예비되어 있는 처소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얻고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서 거하게 [된다.]”(교리와 성약 59:23; 이터서 12:34; 교리와 성약 84:38; 모사이아서

2:41 참조)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곳[교회]에서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 평안에 이르는 길, 축복된
구속의 약속, 행복을 찾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⁸ 몇 가지만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들을 약속받는다.
이는 그 길이 항상 쉽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굳건히 버티는 결과로서 약속받는
축복은 평생토록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이 축복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무엇이든 간에 베드로와 다른 이들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동기의 열쇠가 될 것이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동기를 주는 힘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생각과 합당한 동기의 힘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실재와 진리와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 그리고 후기의
선지자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⁹

나는 힘들게 여겨지는 때라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할 것이다. 매일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과 사랑뿐 아니라 나를 위한
그분의 영원한 희생과 사랑에서 나오는
동기에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

주

1.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자의 길”, *리아호나*, 2009년 5월, 76쪽.
2. 엘 휘트니 클레이튼,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38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3~94쪽; 원문 강조체.
4. 로즈메리 엠 워숍, “다시 찾은 신앙”,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94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물론경의 권능”,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7쪽.
6. 로즈메리 엠 워숍, “다시 찾은 신앙”, 95쪽.
7.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96쪽.
8.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4쪽.
9.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개인적인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37쪽.



두 가지 선택

“주님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삶은 힘들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삶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지만 또한 단순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권능을 부여받아
화평, 빛, 힘, 지식, 자신감, 사랑과
기쁨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길이든 무슨 길이든 다른 어떤 길로
가 그분의 도움과 권능 및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둠, 혼란, 의구심,
슬픔과 절망의 삶을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길이 더 쉽습니까?”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 “길”,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6쪽.

내 삶에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감독님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회개로 향하는 첫걸음

아우릴라스 피터슨

선 교사들과 함께 침례 날짜를
정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기쁘게 “예”라고 대답했다.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리고 내 삶에 구주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알지 못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어두운 나날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에 갑자기
하루하루가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족 문제로 씨름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몰몬경 읽기를 언제나 좋아했지만 그
시기에는 잠시 한쪽으로 미뤄 두었다.
하루는 혼자 집에 있었는데, 몰몬경을

읽으라는 영의 다정한 속삭임을 느꼈다.
그러기 전에 나는 내가 겪는 고통에
위로가 될만한 답을 찾기를 바라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바로 엘마서 5장을
폄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것 없이
스스로를 지켜 행하였느냐? 만일 너희가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 속으로 너희가 충분히
검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옷이 장차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희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그 말씀들이 내게 와닿았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감독님과
만날 약속을 정했다. 물론 겁이 났지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역지로 발을 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함

감독실에 도착하자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말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감독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런 후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분은 마치 내가 자신의 아들인 듯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에서 나에게 대한 사랑이 묻어났다. 그분은 나에게 조언을 주셨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몇 가지를 하라고 하셨으며, 그런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무척 기뻐했다. 나는 그분의 조언을 따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마에게 하신 용서의 약속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하리라.”(모사이야서 26:29) 진심으로 회개한 후,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드디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어둠은 거두어졌다. 나는 행복했고 자부심을 느꼈다.

감독은 도움을 주기 위해 있음

감독님은 와드를 위한 주님의 대표자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다. 그분을 신뢰하자. 문제가 있거나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자. 그분은 도움을

주실 것이다.

물론, 때로는 감독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우리는 영으로 있던 전세에서 … 지금 겪는 경험을 통과하도록 제의받았을 때, 그 경험은 아마 전적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영과 영광을 얻으려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곳에서 분명히 알고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10쪽)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감독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분과 친구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감으로써 영혼이 치유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회개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는 약속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기 위해 감독님이 계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간증한다. 그 두 분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

글쓰이는 아이티 워스트에 산다.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되고,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

1831년 6월에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내가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민족들을 속이며 나아감이라.”(교리와 성약 52:14)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범사에 있어 단 한 가지 규범이 아니라 여러 규범 중 한 가지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이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단 하나의 규범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주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규범, 즉 방식이 있으며, 그런 방식들은 여러 영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배우고 가르치는 경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고 바람직한 배움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식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교사이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자 계시자, 교사, 보혜사, 성결하게 하는 자이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요한복음 14:16~17, 26; 제3니파이 27:20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 성역을 베푸는 성신의

성신을 불러들여 성신이 참된 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학습 방식의
주요 목적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직분은 경전에 잘 나타나 있다. 성신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교사이다. 성신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혼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¹ 성신을 불러들여 성신이 참된 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학습 방식의 주요 목적입니다.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하는 학습자는 성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신의 가르침, 간증의 권능, 확신을 주는 증거를 임합니다. 신앙을 지니고 신앙으로 배우려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을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우리의 의향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

구도자가 신앙을 통해 배우도록 선교사들이 어떻게 돕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도자가 물론경을 공부하고 그 책에 관해 기도하며, 계명을 지키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결심을 하고 지키려면 신앙을 행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부모, 교사,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가르치고 권유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도자, 자녀, 학생, 회원에게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결코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신앙에서 행동이 비롯되고 마음이 열릴 때에만 성신이 확신을 주는 증거를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부모, 교사, 지도자는 영의 권능으로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신앙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배움은 단순한 인지적 이해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해 내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깨어나게 하고(엘마서 5:7 참조), 육에 속한 사람을 벗게 하며(모사이야서 3:19 참조), 마음을 변화시키고(모사이야서 5:2 참조), 주님께로 개심하여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엘마서 23:6 참조)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교리와 성약 64:34 참조) 요구하며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전해 주는 결과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강연이나 시범 혹은 실험을 통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선교사에게서 구도자에게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얻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

1. 배우기 위해 준비한다. 주일학교에 참석해서 교사가 주제를 발표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전에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교사가 수업 전에 읽고 숙고하고 기도해 보도록 권유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강력한 영이 임할 것이며 성신이 여러분의 교사가 됩니다. 준비는 계시를 불러옵니다.

2. 교화하기 위해 상호 작용한다. 다음 성구를 주목해 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2)

이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 중 매우 강력한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 성구에서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라는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볼까요? 누가 교사입니까? 바로 성신입니다. 성신이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는 성신입니다.

교화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것은 계시를 불러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에서 더욱 영적으로 세심하고, 꼼꼼하며, 노력을 요하는 배우고 가르침의 방식을 적용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해 왔던 일을 하고 지금까지 늘 얻어 온 결과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배우고 변화하여 점점 더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3. 실천하도록 권유한다.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이 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더 많은 계시를 불러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서두르시는 일에 보조를 맞추어, 단순히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계속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선두에 계시며 교회의 제반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서두르시는 일에 우리가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당신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

2014년 6월 25일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개조, 149쪽.



준비는 계시를 불러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배움을 얻는

5

가지 방법

연차 대회는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다. 연차 대회의 메시지를 시청하고, 경청하고, 공부한다면 우리 삶에 영이 임할 것이며 간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차 대회는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이다.

다음은 연차 대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다.

왕인민희 | 홍표면의 그리스도와 복자인 젊은 관리 그림의 일부

1

연차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질문들을 적는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질문을 적고, 대회 중에 오는 응답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의 기도와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대회에 참여하여 영에 귀 기울일 때 받을 수 있다.

2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기를 구한다

선지자는 구주에 대해 간증하고 가르친다.(사도행전 10:43 참조) 대회 메시지를 경청하면서, 여러분은 연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노트에 목록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여러분에게는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두려움 없이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2017년 10월 연차 대회

5

의욕을 갖고 영감을 받아 행동한다

영감을 주거나 행동을 취하도록 권하는 메시지와 인용구를 적어 본다. 이렇게 하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고, 나중에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이 했던 생각을 기억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

주제를 살펴본다

연차 대회를 시청하다 보면, 어떤 주제가 한 번 이상 언급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반복되는 주제를 인식하는 것은 영이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신앙을 지니고 신앙으로 배우려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이번 호 50쪽.

4

몰몬경에 주목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언급하는 성구들, 특히 "우리 종교의 종석"인(몰몬경 소개) 몰몬경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연차 대회에서 몰몬경이 언급될 때마다 기록해 본다. 여러분이 찾은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성신에게서 가르침을 받음

이 청소년들은 연차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영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했다. 다음은 그들이 지난 대회에서 배운 것과 그로 인해 현재 달라진 점들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

저는 연차 대회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1) 친구들이 그릇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계속 좋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2) 어떻게 하면 친구들의 놀림을 받지 않고 교회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을까? 연차 대회 중에 영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증거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경전을 공부하면 친구들에 관한 질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삭 알, 13세, 에콰도르 피친차

소개: 외동아들로, 피아노 연주, 스케이트, 축구, 유도, 수영, 노래, 사탕 만들기 등을 좋아한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며, 가장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다.



영감 어린 가르침

저는 연차 대회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쇠막대를 굳건히 잡으라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신이 증거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제 간증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은 살아 계시며 저를 항상, 영원히 사랑하세요.

매들린 비, 16세, 미국 델라웨어주

소개: 삼 남매 중 맏이이며, 크로스컨트리 달리기와 독서와 노래 부르기를 즐긴다. 스페인어를 좋아하며 장래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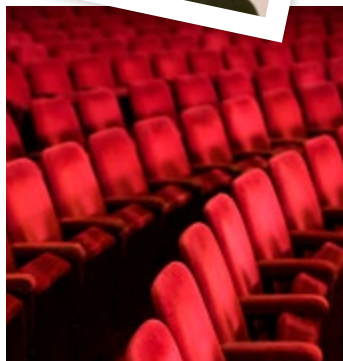


성장하라는 권유

저는 연차 대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르겠다는 소망이 강해졌어요. 그 덕분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빛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영이 제게 매일 성장하고, 또한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도록 물몬경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 영감에 찬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비센테 에이, 16세, 칠레 메트로폴리탄 지역

소개: 네 형제자매 중 맏이이며, 비디오 게임과 음악 듣기, 축구를 좋아한다. 연극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한다.



배우기 위해 준비됨

저는 연차 대회에서 영을 강하게 느껴요. 연차 대회를 위해 질문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로, 연차 대회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저는 각각의 말씀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 그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요!

벤 에이치, 17세, 미국 켄터키주

소개: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며, 학교에서 농구와 테니스를 한다. 스키, 스노보드, 여행, 하이킹을 즐긴다.



빛을 찾아서

제작년은 저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아빠는 암 투병 중이셨고, 우리 도시에는 테러 공격도 있었어요. 저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영적, 육체적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연차 대회에서 저는 우리가 정결하게 생활하고, 우리 마음을 신앙으로 채우며, 영원한 관점을 지닌다면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어려운 시기에는 제 자신의 명철에 의존하는 대신 그리스도께로 의지하라는 영감도 받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찾음으로써 어둠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올리비아 에이치, 17세, 벨기에

소개: 수영을 잘한다. 급식소, 위탁 가정, 학교 내 특수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 봉사하기를 좋아한다.

“교회의 어린 회원 여러분,
[연차 대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면

더 분명하게
영의 영향력을 느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1932~2017),
“연차 대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함”,
2013년 10월 연차 대회

연차 대회에 관한 사실들

컨퍼런스 센터의
파이프 오르간에는
7,667개의
파이프가 있지만,
청중에게는 약 170개의
파이프만 보인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지난 34년 동안 연차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으로서
84차례
말씀했다

221개
국가 및 지역의
사람들이 연차
대회를 시청한다

말씀은
94개
언어로
번역된다



컨퍼런스 센터의
연단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의
오래된 호두나무로
만들어졌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5번의 모임에

10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컨퍼런스 센터 대강당 내부에는 약 70.5미터
길이의 **보잉 747 비행기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다

매번 연차 대회에서는
약 **35**개의
말씀이 전해진다

연차 대회 동안 있었던 주목할 만한 발표

1995년 9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998년 4월:
소규모 성전 건축

2001년 4월:
영구 교육 기금 시작

2012년 10월:
선교사 연령을 낮춤

2018년 4월:
성역이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을
대체함

“가정에서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영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중재자가 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 가족간의 논쟁이나 갈등 대신에 우리는 용화를 이룩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1915~1994), “다툼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8~9쪽.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저의 경우,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옳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화평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 후 자리를 뜨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서로 동의할 만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래지 않아 영이 돌아와요.

딜런 엠, 15세,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저 사랑하세요

저는 가족에게 순수한 사랑을 보이면 영이 우리 가정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지자께서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이며 영혼에 치유를 불러오는 연고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영은 가정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조셉 시, 18세, 미국 애리조나주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가족이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 그들이 논쟁할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점을 고치라고 부탁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가족이 교회 회원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쟁을 피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세요.

카롤리나 에스, 19세, 브라질 고이아스



영을 얻기 위해 기도하세요

가족이 언쟁할 때면 영의 임재를 느끼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당한데도 영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의 영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영의 속삭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평안을 느끼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또한 그분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올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세요.

케이티 지, 17세, 미국 유타주

타협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경전 구절을 나누거나, 찬송가를 불러 보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성신이 여러분 모두를 화평으로 가득 채우시고, 각 사람에게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게 하실 거예요.

루이스 에프, 14세,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

제시된 의견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단순한 느낌 이상인가?

간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6:17) 간증은 성신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다.

성신이 말하는 음성은 듣는다고보다는 느끼는 것이며, 그것은 “생각과 ... 마음에” 임한다.(교리와 성약 8:2, 강조체 추가) 즉, 성신은 우리의 느낌과 생각 모두에 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의 영을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홀연히 여러 생각이 떠오르도록 해 [주는]” 느낌으로 묘사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32쪽)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우리의 사고, 느낌 및 바람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신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에 관여하실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흘러드는 듯한 것이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이다.

다음 질문

“훌륭한 표준을 지닌 친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8년 11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 제출” 클릭)

명확한 표현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길

리아 바턴
교회 잡지

어떤 14살짜리 소녀도 먼지투성이의 헛간에서 녹슨 삽을 들고 냄새나는 마구간을 치우는 것을 꿈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직업을 구할 나이가 될 때까지 방과 후에 매일 이 일을 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뒤통수를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나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했고,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나에게서는 교육이야말로 (바라건대) 보람된 직업을 얻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였다.

다행인 것은, 내가 선택한 길도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선택 사항을 고려할 때,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다음은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청년 성인들의 모범을 따른다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다

오우돔 피세스, 캄보디아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일한다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나는 캄보디아로 돌아와 구직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각 직업을 얻기 위해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하고 훈련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의류 판매업은 훈련 과정이 짧지만 힘들기에,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좋은 기회로 여겨, 그 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그 과정을 마치고 한 의류 회사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다.

알맞은 직업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나에게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구주가 계시다.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사업을 배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속성을 계발하고
있다.

교육을 활용하여 기회의 문을 열다

이올란다 테이세이라,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나의 어머니는 항상 “교육이 성공의 열쇠”라는 말씀으로 나를
격려했다. 나는 내 자신과 특히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원했고, 그렇게 하려면 계속 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 나에게는
대학에 갈 돈이 없었으므로, 컴퓨터 시스템 및 수리를 배우는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청했다.

공부하는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더 나은 앞날을 위해 전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기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항상 주님께 조원을 구한다. 나는 늘
공부에 전념했고, 지금은 일에 계속 전념하며 컴퓨터 기사 및
마케팅 보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지금 노력한다

앤 소피와 로렌스 케빈, 영국 스코틀랜드

앤 소피: 나는 늘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은 십 대 시절에 계속 바뀌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6개월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때 이후로 간호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워드에서 있었던 자립 수업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고 싶은 직업을 골라보라는 말을 들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했는데,

계속 간호사가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주님의 속삭임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먼저, 나는 간호사 과정을 찾아보고 그 공부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았다.

비슷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처음 간호사 과정에 지원했을 때, 내 이름이 대기자 명단에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지원해서 결국 합격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로렌스: 나는 어렸을 때,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무조건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항상 배우며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다.

현재는 한 의류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지만, 경찰이 되고 싶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경찰에 지원하기 전에 3년 연속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2년 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려면 몇 달 더 기다려야 한다.

이게 큰 결림들이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지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고, 앞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때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진로 찾기

1.

자기 자신을 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잘하는가? 어떤 일을 즐기는가? 이런 질문에 답해 보면, 여러분이 이미 가진 기술, 관심사, 재능에 맞는 잠재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조언: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들의 말이 의외여서 깜짝 놀랄 수도 있다!

2.

여러분 주위의 세상에 대해 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은 무엇인가? 현재 어느 회사들이 채용 중인가? 현재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언: 전문대학, 대학, 직업 학교는 사회에서 어떤 기술을 요구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3.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어디에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장기적인 진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조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 본다. 그들에게 질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언하고 제언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청년 성인들처럼, 여러분도 자신과 미래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준비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목표를 염두에 둔다면 성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서 훌륭한 평판을 쌓도록 합시다. 매일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에 몸담고, 마음을 돌립시다.”(“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 2009년 10월 연차 대회) 이제 배움과 일에 집중한다면, 미래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갖게 해 줄 습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감독님에게 스테이크 내 자립 전문가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다. 자립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장래 교육과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앨리 비, 12세, 미국 켄터키주

일 마 전에 우리 가족은 켄터키로 이사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두고 떠나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켄터키는 제가 살던 곳과는 아주 달랐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지부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았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뭔가를 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엄마와 저는 상점에 갔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전도용 카드를 한 움큼 집어 들었어요. 상점에 가서 저는 초코바를 하나 가지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원이 초코바의 값을 찍고 나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주자, 계산원은 어리둥절해 “방금 계산했는데요, 손님.” 하고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그 초코바에 전도용 카드를 한 장 올려놓았어요. 계산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라고 써 놓은 전도용 카드 뒷면을 쳐다보았어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좋은 일을 한 것이니까요.

그날 늦게야 나머지 전도용 카드를 계산대 옆에 놓아두고 왔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 상점에 다시 갈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그 카드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알아보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라고 쓰인 전도용 카드가 네다섯 대의 계산대에 있었어요. 그 계산원이 카드들을 나눠 주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



협곡에서 드린 기도



칼슨 케이, 11세, 미국 유타주

작년에 저는 아빠랑 형과 함께 하이킹을 갔어요. 우리는 협곡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이내 우리는 셋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동굴들과 좋은 전망대들도 발견했어요. 우리는 여기저기 흩어진 바위들과 가파른 비탈을 넘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어요. 협곡의 바닥까지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린 덤불에 갇혀서 협곡의 위도 아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은 어둡고 추워지는데, 우리는 협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시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기도해야 돼요!”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협곡에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저는 곧고 우뚝 솟은 나무가 보이면서 거기서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왼쪽으로 돌아, 우리 차가 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협곡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는 해가 지기 직전에 안전하게 나왔어요.

저는 기도의 힘에, 그리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

체코 공화국에서 빛을 비추다

교회 잡지, 편집: 샤론 굿리치

우리는 체코 공화국에 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한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엄마와 저는 기도했지만, 장갑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 후에 제 남동생이 길거리에서 제 장갑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아요.

안드레 더블유, 9세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표준을 존중해주는 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자고 말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요.

이바나 에이, 11세



저는 친구들과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다다랐을 때 저는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자고 했어요. 친구들은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타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제 친구들은 거기에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서 꼼짝하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도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기뻐요. 그리고 저는 성신을 따랐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말리에 엔, 10세

바닷가에 있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생겼어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대피소로 달려갔어요. 우리 중에 폭풍우로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무지개를 세 개나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야쿠프 비, 10세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학교 친구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자신이 못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친구에게는 저랑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기뻐했어요!
루드밀라 브이, 8세



저는 목욕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싫어서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그다음 날 저는 제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슬펐어요. 엄마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분이 나아졌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 에이치, 5세



교회에서 간증을 나눴어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쪽 영을 느끼고 있어요.
엘리스카 케이, 11세

제가 키우는 기니피그가 아팠을 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네타 피, 10세



별을 보내 주세요!

별 모으기가 거의 다 끝나가요!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서둘러서 여러분의 별 사진을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의 기적”,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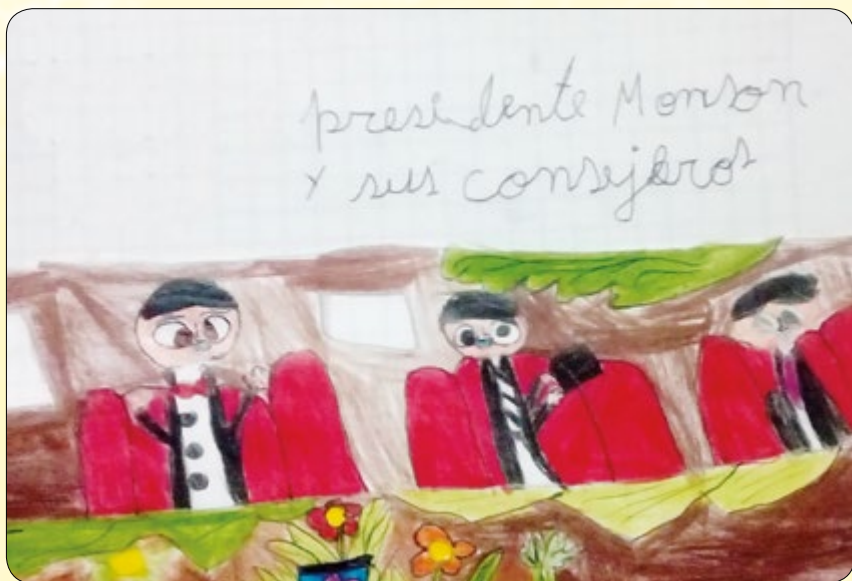
우리들 이야기



교회에 갈 때, 저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느껴요. 저는 구속주를 사랑해요.
아야나 베, 7세, 프랑스



저는 가족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열두 살이 되면 갈 수 있어요. 그곳은 주님의 집이에요.
알도 세, 10세, 멕시코



“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
오마르 아, 9세, 페루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때가 좋아요. 특히, 말하기와 쓰기, 읽기를 잘 못하는 남자애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아주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복음을 나누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예요. 선생님이 공책에 숙제를 내주실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애를 도우려고 해요. 봉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알리슨 엠, 10세, 엘살바도르

네덜란드의 희망

메건 암네히트
실화에 근거함

그레이스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열다섯 살 난 소녀였어요. 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굶주렸으므로, 전쟁이 금방 끝나길 바랐어요.

제 2차 세계 대전의 마지막 해는 네덜란드에게 최악의 해였어요. 나치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그레이스는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집을 따뜻하게 할 석탄도 없었어요. 그레이스와 가족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튜립의 알뿌리를 먹었어요. 정말로 끔찍한 맛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아빠가 아직도 전쟁 포로로 지내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람들 말로는 나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945년 5월에 나치는 항복했어요. 네덜란드는 마침내 다시 자유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축하했어요. 이제 그레이스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서워할 군인들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최고였던 것은 그레이스와 오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네덜란드 국기가 집 앞에서 휘날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의미는 단 한가지뿐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오셨어!” 히버가 소리쳤어요.

그레이스와 오빠들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레이스는 아빠에게 팔을 두르며 꼭 안았어요. 아빠도 그레이스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아빠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곧이어 식료품, 의복, 그리고 의약품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구호품을 보냈어요. 그레이스는 새 원피스도 받았어요! 5년간 같은 원피스만 입었는데 새 원피스를 갖게 되어서 무척 기뻐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레이스는 실컷 먹었어요. 선교부 회장단과 네덜란드 정부는 식량을 늘리기 위해 감자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교회 회원들은 인근의 밭에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가을이면 수천 개의 감자를 먹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레이스는 싹이 나오는 감자를 가리키며 아빠에게 말했어요. “우린 이제 배고플 일은 없을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재피 회장님과 이야기를 했단다. 독일에 있는 후기 성도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고 하시더라.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구나.” 아빠는 그레이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재피 회장님은 우리의 감자를 독일 성도들에게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지.”

“우리 감자를 포기하라구요?” 그레이스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치는 독일 사람이었잖아요! “아빠, 그들이 후기 성도라고 해도 독일인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단다. 나는 나를 포로로 만든 그들을 용서했단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용서하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레이스는 아빠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빠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아빠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 그레이스는 전쟁 당시 학교 선생님었던 분을 기억해 냈어요. 그 선생님은 독일인이라고 해서 모두 나치는 아니고, 나치 군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 있는 소녀와 소년들은 그레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알았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우리 감자를 그 사람들에게 주세요.”

아빠는 그레이스를 안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걸 정말 힘든 일이야.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 독일인 형제 자매들도 그렇단다.”

그레이스는 방긋 미소를 지었어요. 화난 감정은 눈처럼

녹아내렸고,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졌어요. 그레이스는 독일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레이스가 그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셨어요. ■

글쓴이는 미국 뉴저지주에 산다.

네덜란드 후기 성도들은 독일 후기 성도들에게 감자 70톤과 청어 90톤을 주었다. 이후 1953년에, 독일 성도들은 큰 홍수를 겪은 네덜란드 교회 회원들에게 구호품을 보내 주었다.

몰몬경 독서 모임

몰몬경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 읽어도 되고,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읽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고 있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몰몬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된 점이나 몰몬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liahona.lds.org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출해 주세요. (“기사 제출하기” 클릭)



이달의 성구: 모로나이서 10장 4절

“...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몰몬경 이야기는 제3니파이 17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이 되어, 그곳에 서 있는 상상을 해요.

바르보라 제이, 11세, 체코 공화국



제가 몰몬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책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몰몬경은 선지자들이 썼어요. 몰몬경은 제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있을 때 저를 도와줘요. 저는 몰몬경을 믿어요.

제이슨 에스, 10세, 인도 마하라슈트라

에스더는 용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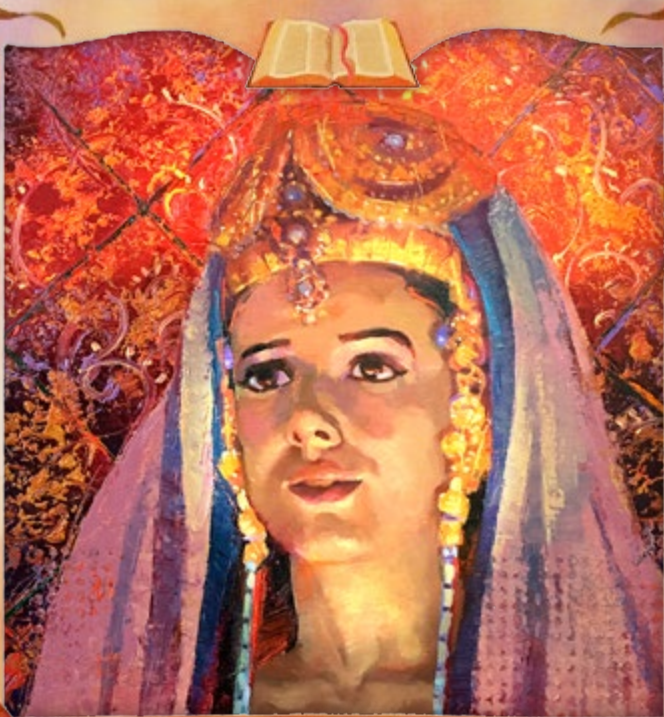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였어요.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왕에게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아주 못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왕을 속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백성을 살려 달라고 간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좌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스더가 왕좌로 나아가자, 왕은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에스더는 왕과 그의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혔어요. 왕은 법을 바꿀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스더는 백성들을 구했어요!



“에스더 왕비”, 레베카 시, 8세, 베네수엘라 아라구아

에스더 2~8장에서 에스더에 관해 읽어 보세요.

삽화: 달린 마쉬



에스더

에스더는 용감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도 용감하게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 에스더 4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외워 보세요.
- scripturestories.ids.org에서 구약전서 이야기 45장을 시청해 보세요.
- 금식할 나이가 되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금식해 보세요.
- 나는 용감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에스더 왕비

김웹 리드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에스더는 바사의 왕과
결혼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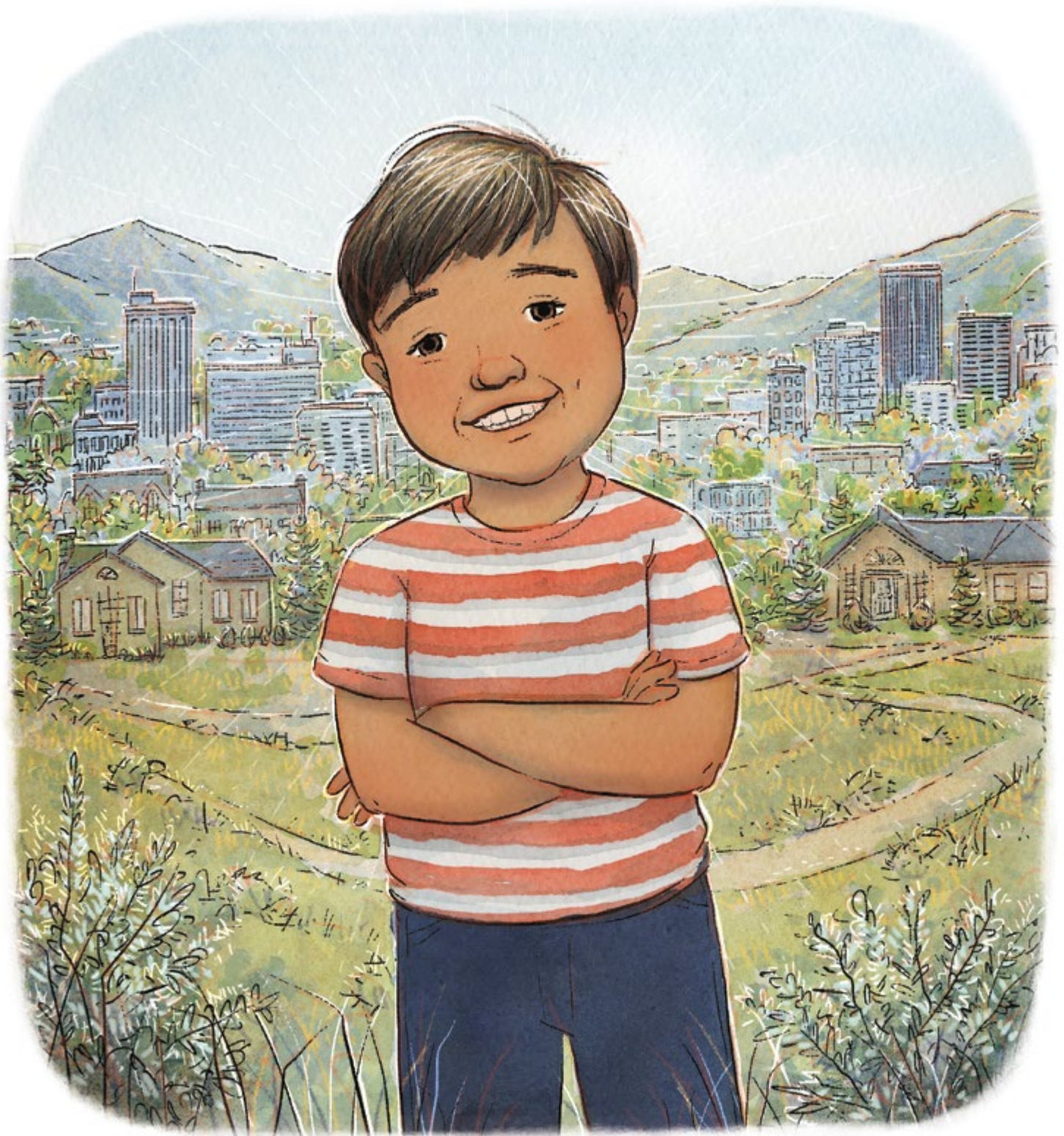


왕에게는 못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왕을 속여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법을 만들게 했어요. 왕은 자신의 아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남편인 왕에게 유대인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왕이 화를 낼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왕에게로 갔어요. 왕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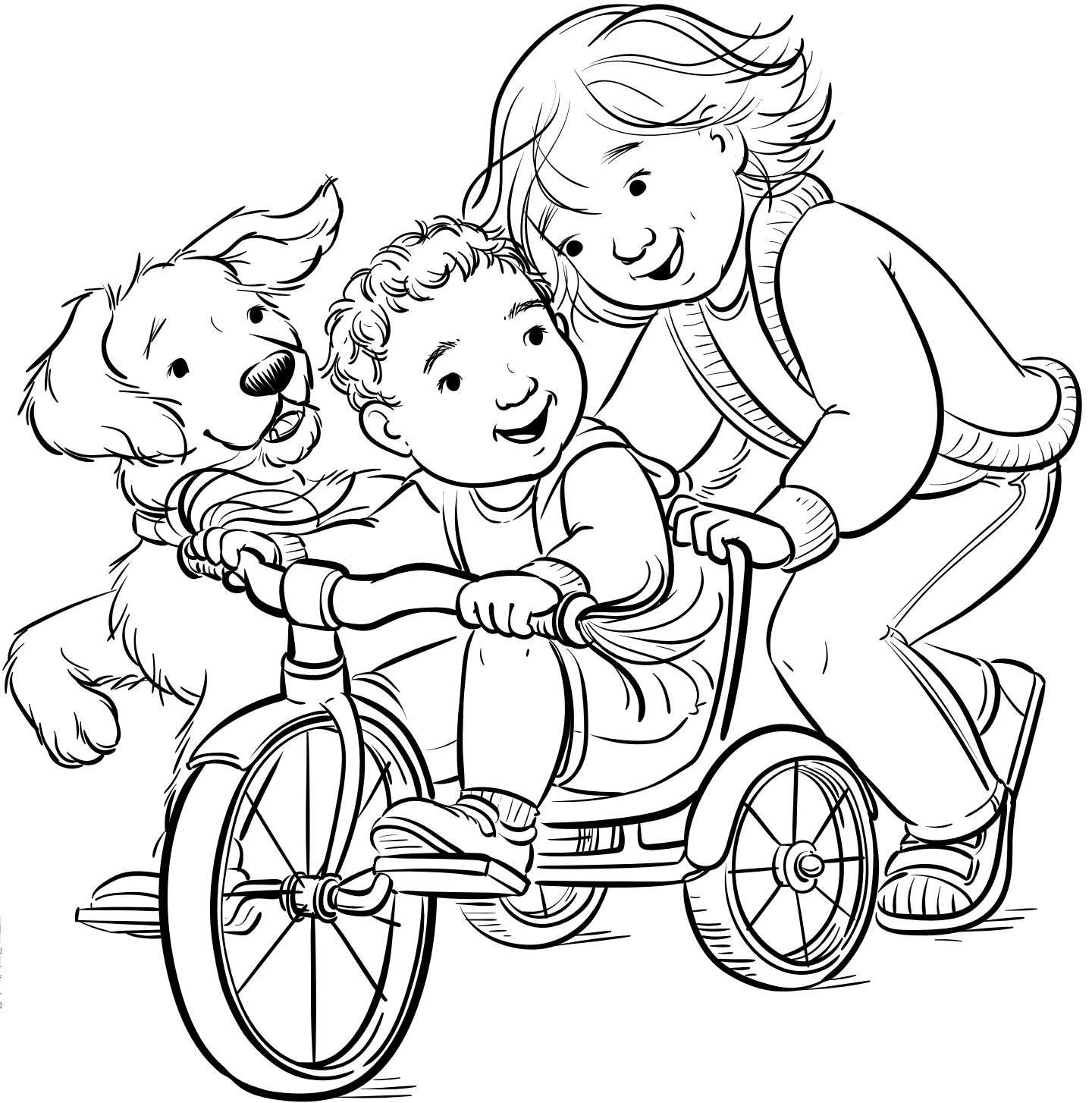
에스더는 왕과 왕의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왕은 그의 친구가 자신을 속인 것에 화를 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구했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에스더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에스더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1920~2007)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지지

대체로 영적인 인도를 받으려면 ...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 늘날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교리와 성약 55:1) 신권
지도자들의 성스러운 직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는] 제
형제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훌륭하고, 영예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위대한 부름에
따라 열심히 일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견디어 낸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
그들은 순수한 마음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은 예리하고
그들의 영적인 지혜는 심오하여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형제들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권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실천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 대체로 영적인 인도를 받으려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은
교회 회장,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사람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장,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
완전하게 화합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제가 교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권고는
교회 회장,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다른 총관리 역원들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지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지역 지도자들 역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감독이나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 그리고 교회
회장과 그의 동료 지도자들로부터
권고를 받습니다. 이 형제들 중 부름을
달라고 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부름받고, 지지받으며,
성별된 사람들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200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청년 성인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기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인가

44



청소년

성신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50, 56

청소년

원하는 미래를 위해 지금
노력하라

60

연차 대회

대회에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50, 54,
58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